

**「民衆」運動圈斗「民族」**

# 「民衆」運動圈斗「民族」

金 永 俊

# 目 次

## 序言：問題의 提起

I. 「民衆」運動의 歷史的 脈絡 .....	4
1. 60年代까지의 學生運動 .....	4
2. 70年代의 學生運動 .....	6
II. 80年代 「民衆」運動圈과 民衆論의 實體 .....	10
1. 概 說 .....	10
2. 階級史觀과 民衆抗爭史 .....	11
3. 民衆論 分派의 路線과 戰略·戰術 .....	15
(1) 三民闘의 路線과 戰略·戰術：革命모델의 原型 .....	16
(2) 民民闘의 路線과 戰略·戰術：소비에트 모델 .....	18
(3) 自民闘의 路線과 戰略·戰術：人民民主主義 모델 .....	21
(4) 民族民衆革命派와 戰略·戰術：亞流모델 .....	25
(5) 民衆革命(論)의 主體=民衆의 概念과 範疇 .....	28
III. 마르크스·레닌主義的인 民族·人民·民衆·階級聯合의 概念 .....	31
1. 蘇聯의 民族理論과 民族民主國家 모델 .....	31
(1) 蘇聯에서의 民族概念과 그 變化 .....	31
(2) 蘇聯의 對 第3世界 民族民主國家 모델 .....	35
2. 毛澤東의 民衆·人民·階級聯合의 概念과 範疇 .....	38
(1) 民族主義者 時代(1920년까지) .....	39
(2) 初期 共產主義者 時代(1921~26年) .....	39

(3) 江西소비에트 時代 ( 1927 ~ 34 年 ) .....	40
(4) 延安時代 ( 1935 ~ 49 年 ) .....	41
3. 北韓의 民族概念과 對南 民族民主戰線 ( 民民戰 ) .....	44
(1) 北韓의 民族概念 .....	44
(2) 北韓의 對南 民族民主戰線 ( 民民戰 ) .....	45
 IV. 民衆論의 「民衆」과 마르크스·레닌主義的 「民族」의	
相關關係 .....	49
1. 鬭爭對象 .....	50
2. 革命主體 .....	50
3. 過渡的 政府形態 = 民衆聯合政府 .....	53
4. 民族·民主·民衆 統一論 .....	55
 結    論 .....	57

## 序言：問題의 提起

本考는 單純한 學問的 關心에서 쓰여 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이 內容은 近者 몇年에 걸쳐서 우리 社會의 一角에서 一部 進步的 知識人과 急進 左傾學生들의 物議를 빚고 있는 運動圈의 바탕이 되는 民衆運動의 理念과 그 實體를 分析하여, 그에 對한 對策을 마련하는데 一助를 다하고자 하는 努力의 一環으로 쓰여진다. 그러나 여러 制約때문에 便宜上 運動圈學生들의 民衆論을 重點的으로 分析하되, 다만 그 焦點을 民衆論의 主張과 「民族」의 存立이 兩立할 수 있느냐에 두어짐을 미리 밝혀 둔다. 그렇기 위하여 우선 1) 民衆論의 歷史的 脈絡을 理解하기 위해 解放直後에서 70年代까지의 學生運動을 檢討하는데서부터 始作하여 2) 80年代 民衆論의 實體를, 그들에 있어 기본적인 世界觀 = 階級史觀, 各 分派의 路線과 戰略·戰術, 革命主體인 民衆의 概念과 範疇를 中心으로 檢討하며 3) 이들 民衆論의 革命主體인 民衆의 概念·範疇가 마르크스·레닌主義的인 그것과 어떤 類似性이나 關聯性이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蘇聯의 民族理論, 毛澤東의 人民의 概念 그리고 北韓의 民族概念과 民族民主戰線의 革命主體의 概念을 檢討한다. 이들 檢討를 土台로 4) 民衆論의 民衆과 마르크스·레닌主義的인 「民族」이 우리 自由民主國家의 民族과 概念上으로나 實際적으로 다 같이 兩立할 수 없음을 整理하여 要約함으로써 結論을 내리고자 한다.

# I . 「民衆」運動의 歷史的 脈絡

## 1 . 60年代까지의 學生運動

1983年 學園自律化 措置이래 學生運動은 더욱 左傾・急進化로 치달았다. 이들 運動圈學生과 一部 進歩的 知識人들이 體制否定的의 새로운 視角에서, 信念的바탕을 「民衆統一論」에 두고 그들의 主張을 외치는 소리를 높여만 가고 있다. 知識人중 一部 民衆統一論者 가운데는 民衆社會學・民衆神學・民衆教育學・民衆文學者 등이 包含되어 있다. 그러나 運動圈學生들의 民衆運動은 決코 解放이후 우리나라에서 展開된 學生運動의 歷史的 脈絡에서 斷絶된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것은 우리나라의 政治的・經濟的・社會的 發展의 現 段階에 照應하는 學生運動의 歷史的인 產物이기도 하다. 때문에 民衆運動의 歷史的 脈絡을 理解하기 爲해서는 우리나라의 戰後 左傾學生運動의 흐름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理念的 背景의 變化・推移부터 먼저 檢討하는 것이 論理的인 順序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研究는 民衆統一論의 實體를 解剖하여 그것과 「民族」의 存立이 兩立할 수 없다는 것을 分析하는데 그 主目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必要 不可缺한 範圍內에서 戰後 左傾學生運動의 略史를 一覽하기로 한다.

모든 舊植民地國家의 學生運動이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의 學生運動의 性格도 源泉的으로 民族主義運動과 그 脈絡을 같이하여 反外勢的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戰後 美・蘇가 각기 38度線을 軍事分界線으로 하여 南・北에 進駐하고 또 政治的으로 우리 國民이 西歐 民主主義를 所望스럽게 생각했다는 事實에서 親美一邊倒路線에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45年 解放과 더불어 同年 8月 17日 學生들이 學徒隊를 組織했는데, 12月 27日 「모스크바 三相會議」에서 5年間の 信託統治案이 提案됐다는 것이 報道되자 學徒隊는 「反託全國學生聯盟」을 1946年 1月 7日에 結成하여 反託을 宣言하는 反面에 그중에서 極少數 左翼系學生들은 贊託을 宣言하고 「在京學生行動統一促進會」를 結成했다. 또 같은 해 7月 13日에 京城大學 綜合大學案(國大案)이 發表되자 贊反을 둘러싸고 學生들은 右·左翼으로 兩分되었다. 이처럼 信託統治案과 國大案 문제를 둘러싸고 右翼學生團體의 反託·贊國大案 運動은 反蘇·反共運動으로 이어졌다. 反外勢的인 民族主義的 에너지가 反蘇·反共運動으로 展開된 것이다. 따라서 40年代에 있어서 左翼學生團體는 南勞黨의 外廓團體로서 꼭두각시의 役割을 하면서도 地下에서 存立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50年代 말에는 學生運動의 左傾化가 싹트기 始作하였다. 이 점에서 보아 50年代 말은, 學生運動이 左傾思想의 性格을 띠우게 되어 오늘날의 左傾·急進化思想의 原型이 胎動케 되는 時期이기도 하다. 이 때 少數의 學生들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討論을 爲해 地下에 「新進會」라는 學習小組를 結成(1957)하여 統一과 平等社會의 建設을 위한 無產階級의 團結을 強調했다.<sup>1)</sup> 理念으로서의 마르크스·레닌主義와 目標로서의 平等社會의 建設을 提示한 것이다.

60年代의 學生運動 特히 4.19革命은 對內的으로 反獨裁 民主化運動의 先鋒이었다. 뿐만 아니라, 4.19는 對外的으로 民族主義를 志向하여 多様な

---

1) Sung Joo Han, The Failure of Democracy in South Kore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PP. 198-200.

統一方案에 對한 主張을 擧げ 하였다. 그후 5.16을 거쳤으나 學生들은 5.16이 4.19의 繼承이 아니라고 前提, 不滿을 품고 있던 次에 때 마침 1964年 韓日國交正常化 會談의 開催를 好機삼아 이에 反對하는 「6.3」示威를 展開했다. 6.3 學生示威는 反外勢・反日的 運動이었는데, 日本에 對한 支援勢力이 美國이었다는 點에서 反日運動은 反美運動으로 이어졌다. 또 反美鬭爭에 對한 認識은 初步的으로나마 反帝鬭爭에 對한 意識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4.19에서 6.3 學生示威에 이르는 기간에 있어 1) 對內的으로 反獨裁民主化 運動 그리고 2) 對外志向的으로는 反外勢・民族主義的인 反日 ⇨ 反美 ⇨ 反帝運動으로 이어지는 過程에 있어서 學生運動은 漸次로 左傾・急進的인 意識化를 追求하면서 50年代와는 달리 小規模의 地下 學習小組가 量的으로 늘어나면서 地下 左翼團體와의 連繫를 맺고져 시도하게 되었다. 또 이와 함께 그들은 統一問題에 대한 이슈를 提起했다. 學生運動의 左傾・急進的의 量的 膨脹과 左傾團體와의 連繫試圖는 드디어 1968年 統革黨 事件으로 나타났다. 또 1969年 三選改憲案 反對學生示威는 反永久執權・反獨裁 民主化運動으로 나타났다.

## 2. 70年代의 學生運動

70年代는 從來의 初步的인 左傾・急進化 경향의 學生運動을 地下에서 地上으로 前面으로 登場케 하는 決定的인 過渡期였다. 그 代表的인 事件이 民靑學聯事件(1974), 南民戰事件(1979), 그리고 光州事態(1980)였다.

民靑學聯(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合會)은 全國 29個大學을 中心으로 結成된 組織으로서, 教練反對(70.12), 登錄金引上反對(71.3), 反獨裁救國宣言(71.4), 維新憲法 反對(73.11) 등의 示威를 主導했다. 左傾學生들은 民靑

學聯이 民主運動과 民衆運動을 連結하여 反體制 大衆鬭爭을 摸索하기 위한 것 이었다고 自認하고 있다.<sup>2)</sup> 이들은 校內에서는 탈춤 등 青年文化運動으로 또 校外에서는 農活·夜學등의 運動으로 그 것을 展開했다. 또 이들은 學生運動을 勞·農民衆運動의 前衛라 自處하고 勞動運動·農民運動·教會運動 特히 教會를 통해서 展開되는 民衆運動 支援과 在野의 民主化運動속에 成長해 왔음을 肯定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職業的인 左傾學生들의 非合法的인 地下 前衛運動이 教會 및 在野의 民主化運動의 溫床속에 寄生하여 成長해 왔다는 것을 示唆한다.

두번째의 70年代 左傾學生運動은 南民戰(南朝鮮民族解放戰線)의 事件(1979.10.4)으로 알려져 있다. 南民戰은 民青學聯의 地下 前衛運動路線에 따라 左傾學生을 包括하여 地下 革命勢力으로 結成되었다. 이 組織의 活動은 1976年부터 始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組織은 形式上 民主化運動을 利用하며 背後에서 學生運動에 便乘, 操縱하여 民衆蜂起로서 革命을 일으키려는데 그 目的이 두어졌음이 밝혀졌다.

다음에 80年代에 접어들면서 特히 3月부터 大學生示威가 激化一路를 치달아 5月 15日에 그 絶頂에 이르자 5.17非常戒嚴令이 宣布되었으나 光州事態(5.18~27)가 發生했다. 左傾 急進主義的인 運動圈學生들은 光州事態를 「光州民衆抗爭」이라 부르며 다음과 같이 評價한다.<sup>3)</sup>

1) 70年代이래 누적되어온 제모순에 대한 民衆의 反獨裁民主化 鬭爭의 경험과 80年 民主化의 봄에 성숙한 民衆의 정치의식이 결합되어 폭발한

---

2) “學生運動의 認識과 展望”(1983.1.1).

3) “광주 민중항쟁의 민중운동사적 조명”, 『학원문제 연구자료』(전국 대학원리연구회, 1986.6.17), P. 251.

民衆抗爭이었다.

2) 抗爭主體의 다수는 근로빈민·농민등 基層民衆이었다.

3) 美國과 軍部獨裁(政府를 가리킴:筆者)와의 갈등적 성격보다는 연대적 利害가 固有하다는 側面이 더욱 부각되었다.

4) 광주항쟁에서의 무장투쟁은 物理力을 갖추지 못한 民衆들의 自然發生的, 自己防禦的인 것이었다.

5) 민중의 일시적 승리기간(22~26)에는 民衆에 依한 自治가 실현되어 파괴된 광주를 정비하고 解放된 光州를 건설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光州事態에 대한 이러한 評價와 더불어 그들은 그것이 80年代 民衆民主化運動에 다음과 같이 몇개의 좌표를 設定<sup>4)</sup>해 주었음을 指摘하고 있다.

1) 運動方向性的 確立이다. 80年代 民主化運動은 70年代의 反獨裁民主化的 鬭爭을 深化시키고, 덧붙여서 反外勢 民族統一運動을 展開할 것을 同時的 課題로 設定하게 되었다.

2) 基層民衆運動의 活性化에 注力해야 되겠다. 인텔리의 참여, 노동·농민·빈민운동에 대한 제 民主化勢力의 支援強化등으로 具體化되어야 한다.

3) 運動姿勢의 確立이다. 敵對的인 兩極的 矛盾에 대한 認識의 深化 및 實踐의 高度化, 獻身的 鬭爭姿勢의 發揮등이다.

뿐만 아니라 光州事態의 意義를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sup>5)</sup>

「韓國民衆運動은 政治的 民主化段階의 4月革命을 거치면서 政治的民主化 및 經濟的 不平等의 解消라는……모순을 總體的으로 認識한 社會民主化運動

---

4) “같은 論文”, PP. 251~252.

5) “같은 論文”, P. 253.

으로 發展해 나갔다. …… 70年代 反獨裁 民主化運動으로 民衆에 의한 主體  
的 克服을 達成하고 80年 光州民衆抗爭이 이의 延長으로 나타났던 것이  
다:……光州民主抗爭은 韓國社會構造의 總體的 矛盾을……打破코저 했던 民衆  
運動이다. 經濟的 不平等과 政治的 抑壓, 文化的 疎外를 克服하고 歷史의  
主體로서 解放을 成就코저 하는 民衆에 의해 民族統一과 民主主義의 確立  
이라는……課題가 解決되어 나가는 모습을 光州抗爭은 보여준다. …… 結局  
光州抗爭은 解放이후 展開되어온 우리 運動의 여러 目標를 結合하고 鬪爭  
의 過程속에 確認하였으며 民族·民主·民衆이라는 性格이 우리 運動의 方  
向을 規定해 준다.]

여기에서 보는 바, 光州事態로서 左傾急進的인 學生運動의 性格을 大略的  
으로나마 基層民衆을 主體로 統一志向的인 民族·民主·民衆路線으로 規定하  
고 있다. 이 點에 있어 光州事態는 從來의 左傾學生運動이 民衆運動路線으  
로 넘어가는 하나의 分岐點 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學生運動의 理念도 60年代까지의 民族主義的인 反外勢·反獨裁 民主化로부  
터 70年代에 와서는 經濟成長과 더불어 反經濟的 不平等으로 質的으로  
變化하여 勞動問題에 對한 關心이 커지는 가운데 農民運動·勞動運動의 刺  
戟으로 이어지고 經濟秩序에 있어 反資本主義的인 傾向을 짙게하게 되었다.  
어쨌든 이리하여 80年代는 民衆論의 時代로 접어들게 되었다.

## II. 80年代 民衆運動圈과 民衆論의 實體

### 1. 概 說

左傾 學生運動은 光州事態(80)를 契機로 武裝鬪爭을 體驗함으로써 더욱 急進化하는 가운데 理念을 定立, 「民衆民主主義」를 標榜하면서 보다 組織的인 反體制勢力으로 登場함에 이를 運動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左傾理念의 導入은 70年代에 始作되어 70年代 말에는 本格化되고 80年代 초반에 民衆民主主義論의 理念定立期를 거쳐 80年代 중반에는 內部的인 分裂을 거듭하던 次에 近者에 와서는 다시금 內部統合과 整備를 試圖하고 있다. 그래서 運動圈學生들 중에서 多數派(自民鬪)는 지난 8月19日 忠南大에서 全國大學生代表者協議會(全大協)를 結成하는 反面에 少數派(民民鬪)도 그 組織을 整備하고 있는 것으로 傳하여 지고 있다. 이와 같은 民衆運動의 變化·強化過程에서 그들의 口號는 從前과는 달리 점점 民主化에서 統一로 旋回하여 그 強調點이 두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口號에 대한 強調點이 달라지는 것은 民衆運動論者들이 「統一」을 前提로 『民主化』 ⇨ 『革命에 의한 體制顛覆』 ⇨ 『民衆民主主義體制 樹立』 ⇨ 『赤化統一』에 그 目的이 두어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民衆論者들의 民衆民主主義의 實現이라는 窮極的인 目標에 있어서는 同一하지만, 그 理念의 具體的인 內容이나 目標, 그리고 實現의 具體的인 方法·段階에 있어서는 意見이 對立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史的 唯物論의 信奉에선 同一하지만 1) 南韓社會의 構成體, 2) 南韓社會의 矛盾構造, 3) 社會變革의 主體, 4) 社會變革(革命)의 段階, 그리고 5) 社會變革의 戰略

•戰術 등에 있어 意見이 對立되고 있다.<sup>6)</sup>

左傾勢力은 大學街를 成長의 母體로 하여 勞動·農村·宗教·教育·出版·文藝 等 各分野에 浸透 擴散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85年 三民鬪事件이 發生되었다. 左傾 學生運動의 本山的인 役割을 하던 三民鬪가 摘發되자 이것을 契機로 三民鬪의 分化·繼承으로서 民民鬪와 自民鬪가 組織되고 또 그것의 亞流로서 民族民衆革命(National People's Revolution)派를 비롯하여 많은 分派가 생겼다. 이들 亞流的인 分派에는 民族民衆革命(NPR)派를 비롯하여 統一民主革命(Unified Democratic Revolution)派·市民民主革命(CDR)派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紙面의 制約上 三民鬪·民民鬪·自民鬪·民族民衆革命派의 4個分派를 中心으로 그 實體를 分析코져 한다. 그렇다면 먼저 이들이 認識의 出發點으로 共通的으로 信奉하는 史的 唯物論을 土臺로 韓國의 現代民族史를 어떻게 解釋하느냐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 2. 階級史觀과 民衆抗爭史

運動圈學生들의 史觀을 가장 잘 나타내는 代表的인 油印物은 『光州民衆抗爭의 民衆運動史的 照明』(全國學生總聯合, 1985.5)이다.

歷史를 階級史觀에 의해 階級鬪爭의 歷史로 보는 點에 있어 그들은 基本的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者들과 立場을 같이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1920年代부터 1980年代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歷史를 民族과 區別되는 民衆의 抗爭史로 歪曲, 敘述하고 있다.

---

6) 『前進하는 프롤레타리아의 里程碑(N·P·R의 認識과 實踐)』(1986).

日本帝國主義가 韓國을 그의 獨占資本의 從屬體系로 바꾸어 놓고 韓國의 社會構成이 1) 資本·賃金勞動關係, 2) 半封建的 土地所有制하의 地主·小作關係, 3) 이것을 制度的으로 뒷받침하는 總督府權力的 3개의 軸을 中心으로 段階的으로 變化하여 그 收奪이 擴大됨에 「民族」의 存立을 위해 民衆이 主體가 되어 일으킨 反帝·民族解放運動이 3.1 運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3.1 運動의 熱氣속에 이어 20年代에는 工業化가 部分的으로 進行되어 地主·小作關係보다도 資本·賃金勞動關係가 支配的인 矛盾으로 됨과 同時에 農民·勞動者가 急增하여 階級間的 對立·葛藤이 具體化되어 勞動者·農民을 中心으로 한 民衆運動이 크게 高揚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民衆의 反帝民族解放運動이 高揚되는 雰圍氣속에서도 1925年에 創設된 共產黨이 가장 熾烈하게 民族解放運動을 遂行하고 1927年 非妥協的인 民族主義者와 共產主義者로서 新幹會를 組織하여 民族解放運動을 올바르게 指導했다는 것이다.<sup>7)</sup>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20年代에 勞動者·農民을 中心으로한 民衆이 民族解放運動의 主體로 登場하고 그것이 特히 共產黨에 의해 主導되었다고 主張한다.

30年代에 對한 解釋도 20年代에 대한 그것과 類似하다. 卽 30年代에는 日本帝國主義에 의한 急速한 工業化로 資本·勞動關係가 基本矛盾으로 登場하여 日帝에 의한 彈壓에도 不拘하고 妥協主義的인 民族主義勢力과는 달리 勞動者·農民을 中心으로한 民衆이 主體로 되어 地下運動 卽 共產黨의 指導아래 赤色勞組·農組의 運動을 통해 展開되었다고 敘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特記할 것은 그들이 30年代에는 抗日民族解放運動이 最高

---

7) 『앞의 冊』, P. 205.

의 發展段階로 到達하여 抗日武裝鬪爭으로 展開되었는데 그것이 다름아닌, 滿州·시베리아一帶에서 政治적으로 朝鮮光復會(1936), 軍事的으로 朝鮮人民軍(1934)이 結成되어 展開된 日本 關東軍에 대한 武裝遊擊鬪爭이며 또 中國 華中地方에서 中共軍과 聯合하여 「김두봉」이 전개한 武裝鬪爭이라는 主張이다.<sup>8)</sup> 이 30年代 抗日鬪爭史에 대한 풀이는 可笑롭게도 北韓에서 捏造한 『金日成 抗日革命鬪爭史』를 複寫한 南韓版이라 함이 妥當하다.

다음에 解放後의 歷史에 對해선 어떠한가? 解放當時의 南韓의 政治勢力의 分析에 있어 保守的 民族主義勢力은, 日本帝國主義에 對해 妥協的인 親日派·民族反逆者集團으로 絡印적어 除外한채 1) 民族主義 左派(朝鮮共產黨 系列), 2) 民族主義 中道派, 그리고 3) 民族主義 右派의 세가지로 分類하고 있다.<sup>9)</sup> 여기에서 가장 抗日鬪爭의 正統性을 지니는 것이 進步的 民主主義(共產主義)를 志向하는 民族主義 左派이며 그 다음이 같은 進步的 民主主義를 標榜하며 民族戰線을 通해 民族主義 左派와 協調한 民族主義 中道派(呂運亨系列) 그리고 이 中道派와 合作을 試圖했으나 政治적으로 疎外된 民族主義 右派(南北協商系列)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民族解放鬪爭의 傳統을 이어받은 이들에면 正統性있는 政治勢力은 1) 左派인 朝鮮共產黨 2) 中道派인 建國準備委의 呂運亨系列, 3) 右派인 安在鴻系列인데, 美軍政廳은 日本帝國主義와 妥協的인 親日派·民族反逆者와 유착關係를 이루고, 또 特히 48年5月10日 選舉에 의해 수립된 大韓民國政府는 半封建的 地主層과 舊日官僚層을 階級基盤으로 또 反共을 이데올로기로 하여 美國의 反共·親美政權 수립의 要求에 부합하여 수립된 것이므로 正統性이 없다고 그들

---

8) 『같은 冊』, PP. 206 ~ 207.

9) 『같은 冊』, P. 209

은 말하고 있다. 그들은 이처럼 南韓政府가 抗日民族解放鬪爭의 正統性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1946年9月 共產黨에 의한 總罷業과 10月 大邱暴動事件, 1947年3月22日의 總罷業, 1948年2月7日 南韓單獨政府 수립에 反對하는 罷業과 5.10 總選舉反對 左翼系列鬪爭 또 1948年10月19日 麗水·順天反亂事件등이 일어 났다고 하며 또 이들 事件을 그들은 民主抗爭이라고 부르고 있다.<sup>10)</sup>

우리政府의 수립 이후에도 正統性을 위해 民衆運動은 繼續되었으나 反共 이데올로기를 利用한 政府彈壓으로 民衆은 民衆運動 主體로서 役割이 저지 당하여, 4.19 革命은 初期段階에 學生등 知識人의 主導하에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名分아래 그들은 4.19 革命을 李承晩獨裁政權 打倒의 段階인 第1段階(1960.2.28~4.26)와 民衆革命의 完成을 爲해 主體的 力量·努力을 擴散시켜 反外勢 民族統一을 志向하는 段階인 第2段階(4.27~5.16)로 區分하고 있다.<sup>11)</sup> 그리고 그들은 4.19 革命이 未完成으로 그치었으나 民衆이 歷史의 主體로 再復歸하여 抗日鬪爭 이래의 民族解放鬪爭을 繼承하여 民族統一을 志向하며 또 民衆運動의 擔當層으로서 抬頭하고 6·70年代의 民衆運動의 成長에 作用하여 韓國民衆革命의 完成을 向한 巨대한 흐름이었다고 評價한다.

어쨌든 그들은 이와 같은 歷史的 脈絡에서 疎外된 民衆이 主體로 되어 生存權의 確保를 爲해 統一된 民族國家의 樹立을 向해 植民地時代⇨美軍政期⇨4月革命⇨釜馬事態(79.10)로 民衆抗爭運動으로 분출되고 이것이 또

---

10) 『같은 冊』 PP. 211 ~ 215.

11) 『같은 冊』 PP. 218 ~ 219.

光州民主抗爭( 80 )으로 爆發, 高揚되었다는 것이다.<sup>12)</sup> 그래서 「結局 光州抗爭이 解放이후 展開되어 온 우리 運動의 여러 目標를 結合하고 鬪爭의 過程속에서 確認하였으며 民族·民主·民衆이라는 性格이 우리 運動의 方向을 規定해 준다.<sup>13)</sup>」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以上에서 略述한 바와 같이 民衆論者들은 우리의 現代民族史를 마치 階級史觀을 土臺로 築어놓은 北韓의 「朝鮮近代革命運動史」나 「朝鮮民族解放鬪爭史」를 방불케 하는 敘述方式으로 論理를 展開하고 있음이 一目瞭然하다. 周知하는 바 民族史의 主體는 모든 成員으로 構成되는 民族이지 特定階層만을 包括하는 民衆일 수는 없으며 따라서 歷史의 內容도 民族의 生活史이지 限定된 概念인 民衆의 抗爭史만 일수는 없다. 그러면 다음에 民衆論者들이 말하는 「民衆」의 概念과 性格을 檢討하기 위해 그들의 路線과 戰略·戰術을 分析기로 한다.

### 3. 民衆論 分派의 路線과 戰略·戰術

1985年3月 三民鬪의 組織이 摘發되어 瓦解된 후 그것을 繼承, 民民鬪(反帝反과쇼 民族民主鬪爭委員會)와 自民鬪(反美自主化 反과쇼民主化鬪爭委員會)로 分派作用하는 過程에서 기타 民族民衆革命(NPR)派, 統一民主主義革命(UDR)派 그리고 市民民主主義革命(CDR)派 등이 또한 派生됐다. 그러나 여기에선 便宜上 民衆運動圈의 母體였던 三民鬪를 비롯하여 民民鬪, 自民鬪, 民族民衆革命(NPR)派의 路線과 戰略, 戰術을 中心으로 그들이 意味하

---

12) 『같은 冊』, P. 229.

13) 『같은 冊』, P. 253.

는 民衆 = 主體의 本質적인 性格을 규명코저 한다.

(1) 三民鬪의 路線과 戰略·戰術 : 革命 모델의 原型

三民鬪(民族·民主·民衆鬪爭委員會)는 1985年3月 서울大에서 처음 組織된 후 成大, 延大 그리고 其他大學의 順으로 擴散되어 갔는데 그 主要 油印物은 다음과 같다.

(가) “民衆·民主主義·民族解放運動의 基本概念을 定立하자”(1980)

(나) “깃발”(機關紙 : 1984)

(다) “韓半島의 危機狀況과 民族統一”(1985)

(라) “光州 民衆抗爭의 民衆運動史的 照明”(1985)

(마) “一步前進”(1985)

(바) “三民”(1985)등 이다.

三民鬪(民族·民主·民衆鬪爭委員會)는 「社會構成體」面에서 韓國社會를 美·日에 의한 隸屬國家獨占資本主義 社會<sup>14)</sup>로 規定하고 따라서 大韓民國 政府를 「美·日에 의존한 對蘇 前進基地로서의 從屬파시즘」<sup>15)</sup>이라고 賣渡 한다. 이처럼 韓國社會 및 「韓國政府의 性格」을 一方的으로 規定하고 그 概念的 土台위에서 「1953年 以後의 南韓의 民衆民族運動은 反帝·反買辦獨 占資本·民衆民主主義 民族革命運動으로 規定되어야 한다.」<sup>16)</sup>고 主張한다.

---

14) “一步前進”, 『學園問題研究資料』(全國大學原理研究會), P.335,

15) “깃발”, 『같은 冊』, p.287.

16) “民衆, 民主主義, 民族革命運動의 基本概念을 定立하자”, 『같은 冊』 p.53. 1945-1953年의 期間에 土地改革으로 半封建的 大土地所有를 해체시키고, 戰爭은 封建的 身分秩序의 殘滓를 淸소하여 封建殘滓는 消滅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1945年 이전의 韓國의 近代民衆·民族運動을 反帝·反封建·부르조아民主主義 革命運動으로 規定하면서도 1953年 以後의 韓國의 民衆民族運動은, 그間에 封建殘滓가 事實上 消滅되고 獨占資本이 浸透하여 買辦獨占資本의 抑壓하에 있었기 때문에 反帝·反買辦 獨占資本·民衆民主主義 民族解放運動으로 規定되어야 한다<sup>17)</sup>고 主張한다. 그들이 「民衆」·「民主」主義·「民族」革命 즉 三民主義를 理念으로 標榜하기 때문에 그들의 反政府 革命鬭爭은 三反的인 과소政權을 打倒하여 三民主義을 實現하기 위한 것이라고 主張한다. 隸屬國家獨占資本主義의 南韓에서는 基本矛盾이 南韓民衆과 帝國主義사이의 外的 矛盾이며 이것의 表現으로서 國家獨占資本과 民衆사이의 內的 矛盾이 主要矛盾이며<sup>18)</sup>이 矛盾을 解消하기 위한 것이 民衆·民主·民族革命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革命을 遂行할 主體는 누구일까? 그들은 革命의 主體가 民衆일 수 밖에 없는 理由를 다음과 같이 強調한다.

「한 社會에서의 時代的 矛盾의 克服은 그 矛盾을 尖銳하게 반는 階層이 矛盾解決의 主體勢力이다. 따라서 韓國의 社會構成體는 隸屬 國家獨占資本主義이므로 그 解決의 主體는 勞動者가 主軸이 된다」.<sup>19)</sup> (點線은 筆者)

勞動者가 主軸이라 함은 主體 그 自體와 區別하는 概念이며 따라서 그

17) 『같은 冊』, 같은 紙面.

18) “깃발”, 『같은 冊』, p.287; 『前進하는 프롤레타리아의 里程表』 (1986, 第2章, 4) 參照.

19) “一步前進” 『앞의 冊』, p.335.

들은 人間解放・民族解放・階級解放을 同時에 解決하는 革命主體로서 「民衆」을 想定한다. 그리고 그들은 「民衆이란 植民地・半植民地・新植民地 나라들의 反帝國主義・反買辦鬪爭 過程에서 形成된 階級聯合의 歷史的 實體라고 定義될 수 있다.」<sup>20)</sup> 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階級聯合인 民衆의 範疇는 무엇일까? 그들은 韓國社會에서의 階級을 買辦獨占資本家階級・新中産階級・中小商工業者・富農・貧農・勞動者・都市貧民의 7大 階級으로 分類하고 民衆을 「原論(概念)」의으로는 買辦獨占資本家階級을 除外한 나머지 모든 階級の 聯合體이지만 「實踐的」革命的인 民衆은 勞動者・貧農・零細商人・都市貧民으로 構成된 被支配階級の 聯合<sup>21)</sup> 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 중에서 勞動者・農民・都市貧民이 基層民衆(主體)이라고 한다. 그들의 「民衆」의 範疇는 后述하는 바, 毛澤東 特히 北韓의 「人民」의 範疇와 아무런 差異도 없다.

어쨌든 그들은 自由民主主義를 拒否, 民衆이 主體로 되는 武裝鬪爭(暴力革命)에 의해 過渡期的으로 「民族民主」革命政權을 세운 다음 社會主義로 移行하면, 基本矛盾인 帝國主義와 民衆사이의 矛盾的 克服을 위한 反帝鬪爭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 (2) 民民鬪의 路線과 戰略・戰術 : 소비에트 모델

三民鬪를 繼承한 보다 過激派인 民民鬪(反帝反파쇼 民族民主鬪爭委員會 : NDR : 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는 反파쇼鬪爭을 目標로 民族民主革命(NDR)을 追求한다. 民民鬪는 地下組織인 「民民鬪 中央委員會」의

20) “같은 論文” 『같은 冊』, p.376

21) “같은 論文”, pp.376-379.

操縱을 받아 서울대를 비롯 各大學에 浸透하여 86年 4月 全國 39個大學의 民民鬪로서 「民族民主學生聯盟」(民民學聯)을 組織했다. 民民鬪의 主要 油印物은 다음과 같다.

(가) “ 무엇이 프롤레타리아트의 革命的 進軍을 가로막는가? ” (1986)

(나) “ 反帝反과쇼 民衆解放 鬪爭宣言 ” (1986)

(다) “ 大衆은 民族民主改憲鬪爭의 깃발을 要求한다. ” (1986)

(라) “ 革命的 機首를 制憲議會에 돌리자 ” (1986)

(마) “ 5.30 批判 — 所謂 反美論에 대하여 ” (1986)

(바) “ 民族民主宣言, ” “ 民族民主戰線 ” 등이 있다.

民民鬪는 社會構成體面에서 韓國社會를 美·日에 의한 新植民地 隸屬 國家獨占資本主義로 規定<sup>22)</sup> 하는 點에 있어서 이미 論한 三民鬪나 后述하는 自民鬪와 그 立場을 같이 한다. 때문에 韓國社會에서의 基本矛盾을 마르크스·레닌主義者들의 一般的 概念에 따라 生産의 社會的 性格과 私的 所有사이의 矛盾 즉 勞·資對立으로 보고 또 主要矛盾을 國家獨占資本家와 民衆사이의 對立으로 본다<sup>23)</sup> 는 點에 있어서도 三民鬪와 立場을 같이 한다. 그리고 韓國政府를 新植民地 隸屬 國家獨占資本主義와 連結된 「反民衆的 從屬軍事과쇼政權」<sup>24)</sup> 이라고 賣渡하고 있다.

---

22) “ 反帝反軍과쇼 民衆解放 鬪爭宣言 ” (1986), 제 4 장 反帝反軍과쇼 民衆解放鬪爭 참조, 民民鬪의 主要主張은 1) 軍事과쇼政府타도, 民族民主 革命政府수립, 2) 光州革命부활, 憲法制定 民衆議會쟁취, 3) 美國逐出 4) 憲法特委철회, 및 5) 勞動者·學生선봉으로 制憲民衆議會쟁취 등 이다.

23) “ 같은 論文 ”, 같은 章 참조 ; 『前進하는 프롤레타리아의 里程表』, 제 4 장, 4) 참조.

24) “ 앞의 論文 ” 제 3 章 참조.

때문에 韓國社會의 主要矛盾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一次的으로 民衆 (民族民主) 革命에 의해 「從屬軍事파쇼」를 打倒하면 帝國主義와의 連繫고리가 斷切되어 自然히 帝國主義로 부터 解放된다는 것이다. 反파쇼鬪爭 ⇨ 民族民主革命 ⇨ 民主主義 民衆共和國의 樹立 ⇨ 帝國主義 連繫고리의 斷切 ⇨ 民族解放의 等式이 成立되어 民民鬪에선 1次的인 反파쇼鬪爭이 곧 그대로 民主化 그리고 反帝鬪爭이 自主化로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民民鬪에서 이러한 一連의 等式이 成立되는 것은, 韓國社會를 隸屬 國家獨占資本主義로 規定하면서도 파쇼政權이 帝國主義에 대해 어느 程度 相對的인 獨立性を 維持한다<sup>25)</sup>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民民鬪는 革命을 위해 프롤레타리아트의 階級鬪爭의 必要性을 強調하면서도, 그들의 階級意識의 自覺이 스스로를 組織(黨)化 하기에는 不充分<sup>26)</sup>하기 때문에 民衆革命아닌 프롤레타리아革命을 強調하는 것은 時代錯誤的인 機會主義者들의 極左昌險主義라고 非難한다.<sup>27)</sup> 이 처럼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組織化가 成熟되어 있지 않다는 點을 指摘하면서, 레닌의 民族解放鬪爭戰術을 踏襲하여 부르조아지와 提携의 不可避性을 強調하고 그 것의 表現이 바로 制憲議會召集의 要求라고 하여 戰略戰術的으로 正當化하고 있다. 여기에 民民鬪의 汎國民聯合的이며 民衆連帶的인 武裝蜂起를 위한 民族民主統一戰線의 內容과 革命의 主體인 民衆의 範疇가 設定된다. 卽 프롤레타리아트가 主力軍으로 그 指導下에 貧農·都市貧民·進步的 青年學生등과 同盟하고, 急進自由主義的

25) “大衆은 民族民主改革鬪爭의 깃발을 要求한다” (1986) 參照.

26) “무엇이 프롤레타리아트의 革命的 進軍을 가로막는가” (1986), 머리 달 參照.

27) “反帝反軍部파쇼 民衆解放 鬪爭宣言” (1986), 6 參照.

부르조아지와 提携하여 民族民主統一戰線을 構築하여 保守自由主義的 부르조아지를 孤立시키고 과시즘政權을 打倒한다는 것이다.<sup>28)</sup> 여기에 서 보는 바 民衆의 範疇는 勞動者·貧農·都市貧民·進步的 青年學生 등이다. 이리하여 民民鬪는 民衆을 主體로 先·과쇼政權打倒(民主化) ⇨ 後·帝國主義打倒(自主化) ⇨ 民主·民衆共和國(民衆聯合政權) ⇨ 社會主義實現이라는 戰略目標를 追求한다. 民民鬪는 反帝民族革命(對外)과 反과쇼民主化 革命(對內)이라는 2段階革命을 同時에 追求한다는 點에서 急進性을 띠우며 마침 소련에서 볼셰비키들이, 부르조아民主革命(1903.7-1917.2)이 먼저 遂行된 다음 볼셰비키革命(1917.10)만을 遂行한 모델을 방불케 하여 다른 分派와의 相對的인 差異에서 民民鬪의 革命모델이 소비에트모델 이라고 한다.

### (3) 自民鬪의 路線과 戰略·戰術：人民民主主義 모델

自民鬪(反美自主化·反과쇼民主化鬪爭委員會)는 民民鬪의 急進性에 대한 「反」으로서 三民鬪를 繼承하여 1986年3월에 그 殘餘勢力으로 結成된 鬪爭組織이다. 自民鬪는 民族解放·民衆民主主義(NLPDR: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또는 反帝民衆民主主義(AIPDR: Anti Imperialism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을 理念으로 民民鬪가 對內的인 反과쇼鬪爭에 1次的인 戰略目標를 두는 것과는 달리 對外的인 反帝鬪爭에 그 目標를 두고 있다. 그래서 自民鬪는 民族解放·民衆民主革命(NLPDR)派 또는 反帝民衆民主革命(AIPDR)派로 불리우는데, 救國學生聯盟의 操縱하에 서울大를 비롯하여 各大學에 침투하여 1986年 10月末에는 「愛學鬪聯」즉 「全國 反外勢·反獨裁

28) “앞의 論文,” 3, 4 ; “같은 論文,” 3, 4 參照.

愛國學生鬪爭聯合」을 組織하여 建大事件으로 이어졌다. 自民鬪의 主要 油印物은 다음과 같다.

- (가) “民主主義 R” (1985)
- (나) “鋼鐵시리즈” (1986)
- (다) “에스케이革命의 性格과 任務” (1986)
- (라) “美임프의 新植民地 에프統治 깨부수고 解放, 統一, 民主 萬萬 歲!!!” (1986)
- (마) “엔엘스트의 새로운 局面을 열어나가자” (1987)
- (바) “지금 時期 우리들의 戰術的 任務에 대하여” (1986)
- (사) “엔엘피티에 대하여 植民地 半封建社會制度에 대하여” (1987) 등 이다.

自民鬪는 韓國社會를 社會構成體面에서 美國에 依한 植民地(新植民地)·軍事基地화된 隸屬 國家獨占資本資本主義로 規定하는 點에선 三民鬪나 民民鬪와 立場을 같이 한다.<sup>29)</sup> 그러나 우리 政府가 美帝國主義에 隸屬된 傀儡政權에 지나지 않으므로 相對的인 獨立性이 없다고 보는 點에 있어서는 다른 分派와 다르다.<sup>30)</sup> 이러한 韓國社會 및 우리 政府의 性格規定을 土台로 矛盾의 概念에 있어서는 基本矛盾을 生産의 社會的 性格과 私的 所有간의 矛盾 즉 勞資對立으로 보지만, 主要矛盾은 美帝國主義와 韓國民衆간의 矛盾으로 보고 있다는 點에선 國家獨占資本主義와 民衆간의 矛盾을 主要矛盾으로 보는 三民鬪나 民

---

29) “美임프의 植民地 에프統治 깨부수고 解放, 統一, 民主 만만세!!!” (1986), 2, 3) 參照.

30) “에스케이 革命의 性格과 任務” (1986) 參照 ; “같은 論文” 參照.

민闘와는 그 立場을 달리하고 있다. 自民闘가 對外的인 反帝闘爭과 對內的인 反과쇼闘爭이라는 兩大闘爭을 追求하면서도 主要矛盾을 美帝國主義와 韓國民衆간의 對立으로 보기 때문에 于先的이며 1次的인 闘爭目標을 反美反帝闘爭에 두고 反帝民衆(人民)民主革命(AIPDR) 또는 民族解放 民衆(人民)民主革命(NLPDR)의 遂行을 追求하고 있다.

그래서 自民闘의 反美自主化·反과쇼民主化 闘爭은 先·反美自主化 ⇨ 後·反과쇼民主化의 圖式으로 理解되고 있기 때문에 先·反과쇼民主化 ⇨ 後·反美自主化의 圖式으로 理解되고 있는 民民闘와는 本質的인 差異가 있다.

그렇다면 自民闘가 追求하는 反帝闘爭 ⇨ 美帝國主義 逐出(自主化) ⇨ 隸屬 과쇼政權의 崩壞 ⇨ 反帝「民主」政權 樹立(民主化) ⇨ 統一<sup>31)</sup>(赤化)이라는 革命모델에 있어 그 主體는 무엇일까? 그들에 있어 革命의 主力軍은, 마르크스·레닌主義的인 黨을 中心으로 하는 基本 階級(群衆) 즉 勞動者·貧農同盟이다. 따라서 그들은 勞動者·貧農同盟을 主力軍으로 하여 同盟對象인 青年學生·進步的인텔리·都市貧民·小市民·民族資本家·憂國的 軍人등 모든 民族的 階層과 黨派를 網羅한 民衆이 反帝·反과쇼 統一戰線·反美救國戰線을 形成할 것을 강조한다.<sup>32)</sup> 여기에서 보는 바 民衆의 主要範疇는 勞動者·貧農·都市貧民이다. 이렇게 하여 樹立된 「民衆民主政權」이 프롤레타리아政權의 한 形態임을 그들 스스로 自認하고 있다. 따라서 自民闘의 「民衆民主革命」(PDR)도 소비에트發展을 위한

---

31) 自民闘는 容共이 反逆이 아니며 親美가 反逆이라 하면서 反共의 風土위에 聯共統一의 모습을 박자고 強調한다. “엔엘스트의 새로운 局面을 열어나가자” (1987), 2 參照.

32) “미임프의 植民地에프 統治 깨부수고 解放, 統一, 民主만만세 !!!”, 2, 3 參照.

프롤레타리아革命의 한 形態라는 것이다.

그러나 自民鬪의 두드러진 特徵은 革命段階와 革命過程을 區別하는데 있다.<sup>33)</sup> 그들은 民衆民主革命(PDR)이, 프롤레타리아革命(PTR)의 한 形態로서 植民地社會가 植民地支配를 清算하고 새로운 歷史的 發展段階에 들어서서 소비에트의 發展으로 이어지지만 即刻적인 소비에트革命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렇다고 해서 부르조아革命(또는 부르조아民主革命·民族民主革命) ⇨ 소비에트革命 이라는 2個의 歷史的 發展段階를 거치는 것도 아니며 단지 諸過程을 거칠 뿐이라고 한다. 自民鬪는 革命의 段階와 過程을 嚴格히 區分하여 段階란, 社會의 歷史的 發展段階를 意味하기 때문에 植民地에서는 民衆民主革命(PDR)이 제 1段階革命일 수 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民族民主革命(NDR) ⇨ 소비에트革命이라는 2段階 革命을 거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2段階 革命論은 皮相的이라고 批判한다. 이리하여 自民鬪는 革命段階와 區分되는 革命過程은 統一戰線의 時期에서부터 프롤레타리아獨裁政權이 樹立되는 時期에 이르기 까지 民衆民主革命(PDR)이 거쳐야 할 政治·經濟·社會的인 諸變化·發展의 過程을 意味한다고 主張한다. 따라서 自民鬪의 革命論은 2段階論이 아닌 2過程論이라는 點에서 自民鬪에 比하면 相對적으로 中共을 비롯한 「人民民主主義革命」(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모델에 가깝다.

---

33) “같은 論文,” 3 參照.

#### (4) 民族民衆革命(NPR)派：亞流모델

三民鬪를 비롯하여 民鬪・自民鬪 그리고 其他 分派에 대해 가장 批判的인 立場에 있는 것은 民族民衆革命(National People's Revolution)派이다. 民族民衆革命派의 代表的인 油印物은 “前進하는 프롤레타리아의 里程表”(1986)이다.

이 油印物은 다른 分派들의 그것에 비해 單一論文으로서는 量的으로 가장 많으며 또 그 理論展開에 있어서도 그 나름대로의 論理를 驅使코져 애 쓴 흔적이 역역하다. 民族民衆革命(NPR)派는 社會構成體面에서 韓國社會를 經濟的으로는 美國에 依한 隸屬・獨占資本主義 그리고 政治的으로는 國際과시즘에 의한 隸屬과시즘이라고 規定한다.<sup>34)</sup> 그래서 그들은 韓國이 經濟的으로 美國에 의해 國際獨占資本主義의 垂直的 分業體制속에 編入되어 政治的으로 國際과시즘에 隸屬된 과시즘으로서 國際獨占資本및 隸屬獨占資本의 우리 民衆에 대한 搾取와 支配를 代行해 주는 反共・反프롤레타리아的 隸屬政權이라고 賣渡하고 있다. 下部構造인 經濟的 土台가 國際獨占資本主義에 隸屬・發展된 것이기 때문에 이 下部構造에 照應하는 上部構造인 政治도 當然히 國際과시즘에 隸屬된 과소體制라 하여 마르크스・레닌主義的인 唯物論을 授用하여 自己立場을 正當化코져 한다. 때문에 矛盾의 概念에 있어서도 다른 分派와 立場을 달리하고 있다. 다만 基本矛盾의 概念에 있어서는 다른 分派와 마찬가지로 韓國이 資本主義로 存續하는 限에 있어서는 生産의 社會的 性格과 私的 所有간의 矛盾 즉 勞・資간의 矛盾으로 規定하여 基本的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者의 立場을 踏襲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社會가

---

34) “前進하는 프롤레타리아의 里程表”(1986), 제1장, 2, 4), 사) 參照.

當面한 主要矛盾은 國際獨占資本主義=帝國主義와 韓國民衆사이의 矛盾・對立이라고 規定하고 있다.<sup>35)</sup> 이처럼 民族民衆革命派는 主要矛盾을 國際獨占資本主義와 韓國民衆사이의 矛盾으로 본다는 點에 있어는 民民鬪나 自民鬪에서 主要矛盾을 國家獨占資本主義와 韓國民衆사이의 矛盾으로 보는 立場과는 判異하다. 때문에 民族民衆革命派에 있어 革命이란 곧 프롤레타리아트를 비롯한 民衆이, 資本・賃金勞動에서 받는 모든 抑壓・궁핍・疎外・生存의 剝奪을 擊破하기 위한 것이라고 主張한다.

이처럼 民族民衆革命派의 國際獨占資本主義・國際파시즘에 隸屬된 國家獨占資本主義・파시즘體制論에 立脚하여 다른 國家獨占資本主義・파시즘論에 立脚한 社會構成體論・矛盾論 그리고 革命論을 批判하며 特히 社會構成體論에 있어서 周邊部 資本主義論・國家獨占資本主義論・隸屬國家獨占資本主義論을 그리고 革命論에 있어 三民民主革命論・民族民主革命論・反帝民衆民主 革命論・統一民主革命論등을 다같이 신랄하게 批判하고 그 나름대로 戰略・戰術을 設定하고 있다.

그렇다면 民族民衆革命派의 革命路線・모델은 무엇일까? 그들은 前・資本主義的 生産關係를 溫存한채 隸屬 獨占資本主義를 形成한 다른 舊植民地國家에서의 革命은 民族(부르조아지)民主革命이지만 우리 韓國은 그것과는 性格을 달리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韓國은 美國의 支援에 의해 부르조아民主主義 革命을 達成하고 그 資本主義가 韓國社會 全體를 支配하게 되어 우리 社會의 性格이 新植民地社會이며 物的 土台는 隸屬獨占資本主義이며 또 社會・政治體制가 隸屬파쇼體制이기 때문에, 韓國에서의 革命은

---

35) “같은 論文”, 같은章, 같은節, 같은項 參照.

다른 나라와는 달리 國際獨占資本主義・우리民衆사이의 主要矛盾인 構造的 矛盾을 打破하기 위한 體制變革的인 革命 즉 民族民衆革命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sup>36)</sup> 南韓의 革命을 위해 그들은 民族民衆革命의 戰略目標를 美帝를 逐出하고 隸屬과쇼政權을 打倒하여 「反帝・反과쇼 民族・民衆・革命 政權」을 樹立하는데 두고 있다. 이 戰略目標에 이르는 中間段階에 있어 民衆聯合獨裁를 樹立한다고 그들은 強調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革命⇨ 植民主義撤廢(民族解放)・프롤레타리아主導하의 民族自主 「民衆聯合獨裁」⇨ 프롤레타리아革命段階의 社會主義가 實現된다고 主張한다.<sup>37)</sup> 그리고 그들은 民衆聯合獨裁에 있어서는 反革命勢力에 대한 鬭爭을 위해 北・中・蘇와는 反美 等距離外交 내지 直接的인 關係를 맺으며 資本主義的 經濟構造를 段階的으로 撤廢하며 美軍基地의 撤廢와 民衆解放軍을 創設하여 革命課業을 遂行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民衆聯合獨裁를 樹立하기 위한 革命의 主體는 무엇일까? 그들은 民衆聯合獨裁는 勞動者・農民・都市貧民・急進的 自由主義者등 이룰데면 基層民衆으로 構成되며 따라서 革命의 主力軍(基本勢力)은 프롤레타리아트이며 國內豫備軍은 農民・都市貧民・急進的 自由主義者・進步的인 青年등이며 國外豫備軍으로서는 北韓 및 國際프롤레타리아를 想定한다고 主張한다.<sup>38)</sup>

여기에서 보는 바 民族民衆革命(NPR)派는 韓國社會構成을 國際獨占資本・國際과시즘에 隸屬된 國家獨占資本・國家과시즘體制로 評價하는 점 에서 만이 아니라 戰略戰術面에서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에 立脚하여

36) “같은 論文”, 제 3 장, 1 參照.

37) “같은 論文”, 제 3 장, 2 參照.

38) “같은 論文”, 같은 章, 같은 節 參照.

階級鬭爭의 國際化를 志向한다는 點에서 民衆論의 다른 分派와 다를 뿐만 아니라 더욱 急進的이다. 1985年 三民鬭의 解體過程에서 그것을 發展的으로 繼承한 左派가 民民鬭라 하고 또 民民鬭의 急進性에 反旗를 들고 三民鬭를 繼承한 右派가 自民鬭였다고 한다면, 民族民衆革命派는 左派인 民民鬭의 또하나의 左派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民衆革命(論)의 主體=民衆의 概念과 範疇

以上에서 三民鬭·民民鬭·自民鬭·民族民衆革命派의 路線에 대한 檢討를 基盤으로 民衆=革命主體의 概念과 範疇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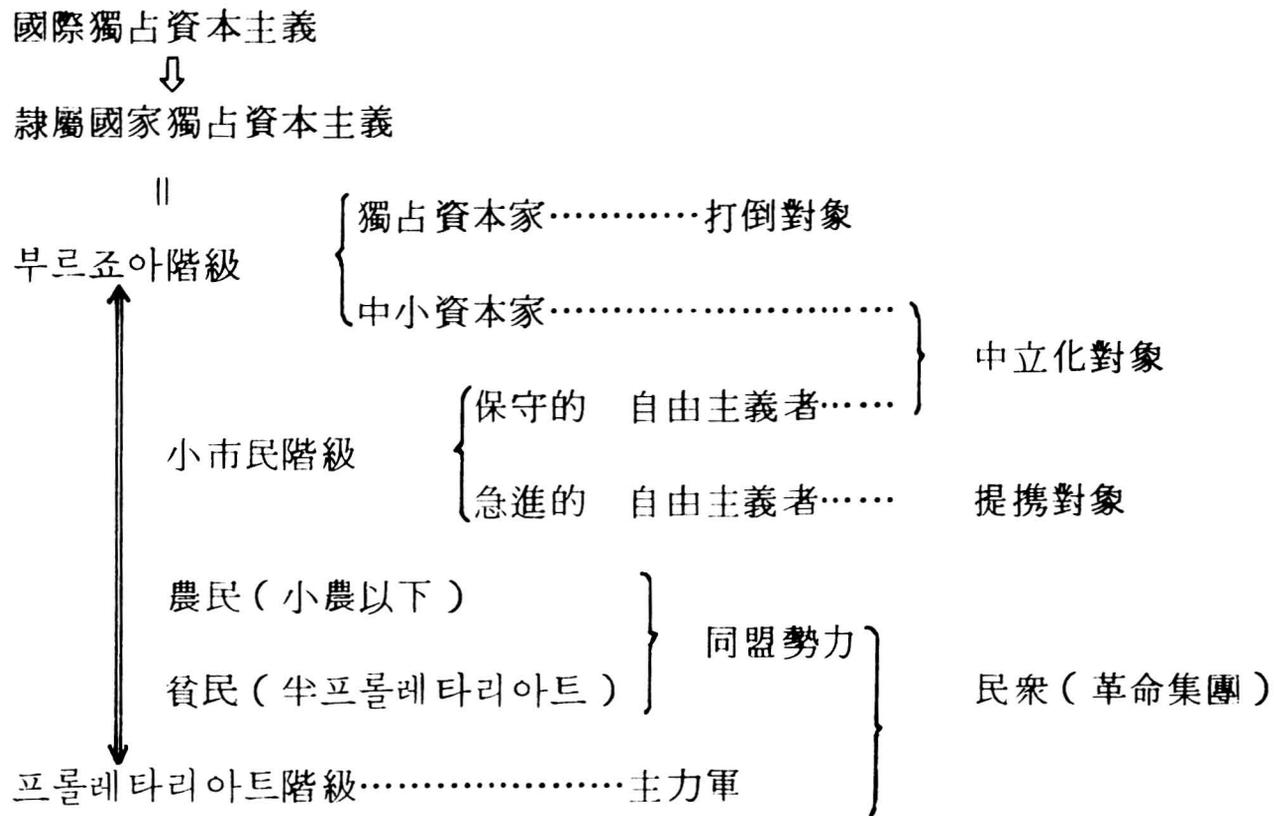
이들 여러 分派에 있어 社會構成體論·矛盾論·革命論·戰略戰術論에 있어서 어느 程度 概念과 立場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들 간에 있어 基本的인 史觀·統一論에 있어서는 立場을 같이 하며 또 民衆革命의 主體라고 하는 民衆의 概念이나 範疇에 있어서 거의 立場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 간의 個別的이며 具體的인 立場의 差異를 取捨하여 그 共通性을 다음과 같이 圖表化<sup>39)</sup>하여도 지나치게 單純化하는 愚를 犯하지 않을 것이다.

이 圖表에서 보는 바 民衆論者들이 提起하는 革命의 主體인 民衆은 決코 個個의 成員과 階層을 包括하는 超階級的인 民族과는, 確然히 區別되어 兩立될 수 없으며 또 그것이 體制를 暴力으로 變革하려는 革命의 主體라는 點에서 反民族的 反體制的 勢力으로 想定된다. 이미 言及한 바 같이 民衆論者들은, 民衆을 反帝·反買辦鬭爭 過程에서 買辦階級을 除外하고 形成된 階級聯合의 歷史的 實體라고 「概念」上 規定하면서도 「政治的 實踐的 觀

---

39) “같은 論文”, 제 1 장, 2), 3) 參照.

「韓國의 階級構造와 民衆의 範疇」



點」에선, 上層階級과 上層中小商工業者 그리고 上層技術勞動者階層은 獨占資本과 관련되어 있어 民衆의 範疇에서 除外되며 따라서 基層民衆에는 勞動者·貧農·都市貧民등이 그 範疇에 속한다<sup>40)</sup>는 것이다. 또 그들은 民衆이란, 韓國社會에서의 資本主義의 矛盾을 階級鬭爭을 통해 解決하려는 主體<sup>41)</sup>라고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視角에서 본다면 民衆이란, 民族을 構成하는 많은 階級·階層가운데서 限定된 階級 즉 階級鬭爭을 위한 主體的 階級聯合을 가리키고 있다.

그들의 階級鬭爭의 모델은 위에 言及한 바와 같이 大別하면 蘇聯모델과 中共·東歐·北韓을 包括하는 人民民主主義모델로 나뉜다. 따라서 民衆論에

40) “一步前進”, 『學園問題研究資料』(全國大學原理研究會, 1986), pp. 376-378.

41) “같은 論文”, 『같은 冊』, p.376.

서 想定하는 革命主體=民衆의 이데올로기의인 性格을 보다 具體的으로 把握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의 民族·人民·民衆(人民大衆)·階級聯合과 概念的으로나 政治 實踐的으로 어떠한 相關關係가 있느냐를 檢討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不可缺하다. 때문에 다음에는 마르크스·레닌 主義에 있어서의 民族·人民·民衆·階級聯合의 概念을 檢討하기로 한다.

### Ⅲ. 마르크스·레닌主義的인 民族·人民·民衆 · 聯合階級の 概念

#### 1. 蘇聯의 民族理論과 民族民主國家 모델

##### (1) 蘇聯에서의 民族概念과 그 變化

마르크스·레닌主義는, 프롤레타리아階級主義이기 때문에 흔히들 民族을 否認하는 것으로 誤解하기 쉽다. 그들은 民族을 重視한다. 그러나 그들이 重視하는 것은 民族 그 自體가 아니라, 民族의 階級的 性格과 內容이며 恒常 民族을 戰略戰術的으로 利用한다.

蘇聯에 있어 民族問題는 레닌에 의하여 提起되고 스탈린에 의해 그 概念이 定立되고 體系化되었다.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들은 2개의 基本的인 信念 卽 1) 社會主義國家는 하나의 統一國家로 되어야 하며 2) 社會主義國家의 基本的 組織原理가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이기 때문에 民族的 差異를 받아들일 餘地가 있을수 없다는 信念<sup>42)</sup>을 堅持하고 있었다. 따라서 레닌의 民族自決權에 對한 關心은 弱少民族의 民族獨立의 欲求를 充足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終局的으로는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레닌은 마르크스·엔겔스와 더불어 民族·民族主義는, 資本主義의 產物임으로 資本主義의 消滅과 더불어 없어지는 것으로 믿었다. 때문에 레닌의 民族自決主義의 原則은 原來 少數·弱少民族의 分離·獨立을 막기 위한 方便으로 提起된 것이다. 그런데 國內的으로는, 볼셰비키革命(1917) 후 獨立을 要求하는 少數

---

42) Jeremy R. Azrael(ed.) Soviet Nationality Policies and Practice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8), p.39.

民族의 要求가 나오자 레닌은 脆弱한 革命政權의 安全을 위해 民族의 存在를 是認하는 聯邦制를 만들었다. 그리고 對外的으로 레닌은 植民地民族解放運動=부르조아民主革命運動의 反帝的 抵抗性を 過渡期的으로 利用하기 위해 民族・民族主義를 戰略的으로 肯定했다. 第1次 國共合作(1923~27)으로 中國에서 國民黨・共產黨을 合作시켜 聯合戰線을 形成케 한 레닌의 戰略的 構想은 바로 이것의 典型的인 實例이다. 어쨌든 民族問題에 대한 레닌의 民族自決의 原則도 民族 그 自體에 대한 肯定이 아니라 民族의 革命的 性格을 黨戰略의 次元에서만 評價했다는 것을 가리킨다.<sup>43)</sup>

레닌에 이어 民族理論을 定立, 體系化한 것은 스탈린이다. 民族理論에 대한 스탈린의 代表的인 論文은 1) 「마르크스主義와 民族問題」(1913), 2) 「民族問題와 레닌主義」(1929), 그리고 3) 「마르크스主義와 言語學의 諸問題」(1950)이다. 스탈린은 「마르크스主義와 民族問題」에서 民族을 다음같이 定義하고 있다.

「民族이란 言語, 地域, 經濟生活 그리고 文化的 共通性에 表現되는 心理狀態등의 共通性에 기초하여 發生하였으며 역사적으로 形成된 사람들의 鞏固한 共同體이다.」<sup>44)</sup>(漢字:筆者)

이처럼 스탈린은 民族을 構成하는 共通的인 特性으로 言語・地域・經濟生活・心理的인 共通性이라는 4個 共通性을 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이들 4개의 特性을 가지는 民族이 資本主義의 產物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資本主義의 消滅과 더불어 없어져야 한다면, 前資本主義段階와 後資本主義段階의 民族을 어떻게 說明할 것이냐의 問題가 提起된

43) Ibid., pp.40-47.

44) 『스탈린 선집』, 제1권(東京:학우서방, 1966), p.88.

다. 이들 문제에 답하기 위해 스탈린이 쓴 論文이 「民族問題와 레닌主義」 및 「마르크스主義와 言語學의 諸問題」였다.

스탈린은 「民族問題와 레닌主義」에서 資本主義段階 以前에는 民族이 形成되지 않았으며 또 그 부르조아民族을 現代民族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論한다.

「부르조아가 封建制度和 封建的 分散性を 打破하고 民族을 한데 모아 結束시켰던 資本主義 上昇期에 發展한 民族들이 있다. 이것이 所謂《現代民族》이다.」<sup>45)</sup> (漢字：筆者)

스탈린은 같은 論文에서 이처럼 부르조아民族이 現代民族이지만, 資本主義의 產物인 부르조아의 民族이 資本主義의 消滅과 더불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낡은 土台위에서 內容과 形式에 있어 새로운 社會主義的 民族이 誕生한다고 했다. 즉,

「問題는 바로 부르조아적 民族들의 清算이 民族一般의 清算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조아적 民族들의 清算만을 意味한다는 데 있다. 낡은, 부르조아적 民族들의 폐허 위에서 어느 부르조아적 民族보다도 훨씬 더 團結된 새로운 社會主義的 民族들이 發生 發展하고 있다.」<sup>46)</sup> (漢字：筆者)

그러나 스탈린은 革命으로 낡은 부르조아의 民族의 清算 ⇨ 새로운 社會主義的 民族의 出現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새로운 社會主義的 民族이 낡은 부르조아의 民族의 土台위에서 發展·形成되기 때문에 社會主義精神을 가진 「人民」과 그렇지 못한 「非人民」을 區別하여 後

---

45) 『스탈린 선집』, 제 2 권 (東京：학우서방, 1966), pp.523-524.

46) 『스탈린 선집』, 제 2 권 (東京：학우서방, 1966), p.528.

者를 精神的으로 改造하기 위해 階級鬭爭을 繼續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階級鬭爭을 통해 부르조아의 民族을 階級的인 社會主義的 民族으로 그 形式·內容을 根本적으로 바꿔놓을 것을 強調했다. 이것은 마르크스主義者들에 있어 民族問題는 戰略問題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革命 및 프롤레타리아獨裁에 관한 問題의 한 部分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스탈린은 資本主義段階 以前の 民族概念을 定義하지 않고서는 그의 民族理論을 體系化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쓴 論文이 「마르크스主義와 言語學의 諸問題」이었고 여기에서 그는 原始共同社會의 崩壞에서 封建社會의 崩壞까지의 歷史的 段階의 人間共同體를 準民族(Narodnost)의 概念으로 說明했다.<sup>47)</sup> 그래서 스탈린은 人類歷史에서 人間共同體의 發展過程을 種族 ⇨ 準民族 ⇨ 부르조아의 民族 ⇨ 社會主義的 民族 ⇨ 民族의 融合(統合)의 展開過程으로 說明한다. 社會主義의 目的은 레닌이 指摘하듯이 世界의 여러 民族·國家를 細分化하여 孤立(分離)시켜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民族을 接近·融合시키는데 있다.<sup>48)</sup> 이것은 소련이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를 名分으로 革命 기타의 方法에 의해 他民族을 隸屬시킬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마르크스·레닌主義的인 民族理論에서 본다면 植民地 民族解放運動도 그들이 革命運動에 戰略적으로 利用價値가 있을 때에만 支援하며 따라서 그 民族理論은 民族主義와는 兩立될 수 없다.

스탈린의 民族理論은 60年代 中半期이래 批判되기 始作하여 70年代 末에는 그 批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바, 그 主要 差異點은 民族을 構成하는 4個가운데서 特히 經濟生活의 共通性<sup>49)</sup>을 決定的인 要素로 強調하는데 있다.

---

47) *Fundamentals of Marxism-Leninism*(Moscow, 1959), pp.149-150 ; 『스탈린 선집』, 제 3권(東京:학우서점, 1966) 參照.

48) 『스탈린 선집』, 제 2권(東京:학우서점, 1966), p.533.

49) 民族을 構成하는 4個要素가운데서 經濟生活의 共通性이 決定的인 要素라고 한다면 獨逸이나 韓國과 같은 分斷國은 같은 民族이 아니라는 民族二分論이 나오게 된다.

## (2) 소련의 對第3世界 民族民主國家 모델

植民地民族主義는 그의 反帝·反植民의性格·非同盟·外援의 必要性 등으로 共產陣營에도 接近을 試圖했다. 이들 與件을 勘案하여 소련은 1960年12月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世界81個國 共產黨代表者大會에서 第3世界의 新生民族國家를 共產化하기 위한 過渡期的 國家모델로서 民族民主國家( national democratic state ) 그리고 그 實踐을 위한 戰略的 綱領으로서 民族民主戰線( 統一戰線 )을 提示했다.<sup>50)</sup> 2次大戰후 第3世界에서의 革命條件의 未成熟으로 레닌의 提제인 共產黨과 民族主義者 同盟도 잘 實現되지 않았다. 元來 戰後에 이르기까지 소련은 共產黨 以外는 不信했다. 왜냐하면 레닌은 資本主義에 의한 包圍( capitalist encirclement )의 綱領에 사로잡히고 또 스탈린은 一時的 힘의 均衡을 前提로 하는 兩陣營( two camps )의 綱領<sup>51)</sup>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戰後에 漸次的으로 中立主義勢力이 國際政治上에서 增大되고 또 核武器를 中心으로 美·蘇間에 恐怖의 均衡이 維持되자 兩陣營 사이에 核全面戰爭의 可能性이 減少되어 갔다. 그래서 흐루시초프는 이미 蘇共產黨 20次大會('56)에 國內的으로는 黨改革 그리고 對外的으로 對美 戰爭可避論과 社會主義의 多樣性을 是認하게 되었다.<sup>52)</sup> 「戰爭可避論」은 核武器의 發達에

---

50) William T. Shinn, "The National Democratic State : A Communist Program for Less- Developed Areas", in *World Politics*, Vol. XV, No. 3 (April 1963), pp. 377-389, 金永俊, 『新生國政治論』(서울: 一潮閣, 1986), p. 146.

51) 스탈린, 『ソ同盟における社會主義의 經濟的諸問題』(東京: 大月書店, 1975), pp. 39-44.

52) 金永俊, 『革命이데올로기와 葛藤』(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 pp. 143-150.

따르는 恐怖의 均衡때문에 對美鬭爭을 從來의 軍事的 對決의 形式을 競爭的 共存의 形式으로 바뀌 놓은 것이다. 「社會主義의 多樣性」은, 革命모델의 典型으로서 소비에트모델을 強要하던 스탈린主義를 止揚하여 소비에트모델 外에 人民民主主義모델, 4個階級の 聯合獨裁인 中共모델 그리고 富農中心의 유고모델 등이 있음을 是認한 것으로 多樣한 「社會에의 民族路線」이라고도 부른다.<sup>53)</sup> 1957年 「모스크바宣言」에선 社會主義의 多樣性에 대한 限界를 設定하기 위한 附帶條件으로서 1) 黨의 核心인 勞動階級에 의한 勤勞大衆의 指導, 2) 資本主義的 所有制의 撤廢, 3) 勞·農·勤勞大衆의 同盟, 4) 農業의 漸進的인 社會主義的 改造, 5) 프롤레타리아獨裁, 6) 社會主義·共產主義 建設을 目標로 하는 計劃經濟, 7) 이데올로기·文化에 對한 社會主義化, 8) 人間간의 平等·友愛·抑壓의 撤廢 9) 社會主義업적의 방어 그리고 10)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등 10個條項<sup>54)</sup>을 提示했다.

이들 一聯의 狀況은 흐루시초프가 中立主義를 國際政治上의 現實的인 勢力으로 認定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狀況的 條件의 變化에 對應하는 對第3世界 戰略으로서 登場한 것이 植民地에서의 過渡期 國家모델로서 民族民主主義國家이며 그 實踐 綱領으로서 民族民主主義 統一戰線이었다. 소련은 對美 世界戰略的인 次元에서 脆弱한 地方共產黨보다는 強力한 民族主義 政權을 支援하여 理念과는 無關하게 經濟·技術·軍事援助까지 提供하게 되었다. 그래서 흐루시초프는 이들 對象國家를 民族民主主義國家로 定義함에 있어서 1) 非同盟·反유럽의 原則, 2) 西方側

---

53)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March 1959), p.131.

54) G.F.Hudson et al, *The Sino-Soviet Dispute* (New York:Frederick A. Praeger, Publishers, 1961), p.51.

으로부터의 經濟援助의 極少化, 3) 共產黨에 對한 寬容, 그리고 4) 自主的인 國家經濟의 建設이라는 4個條件<sup>55)</sup>을 提示했다.

이와 같은 소련의 政策轉換에 對해 正面으로 挑戰한 것이 毛澤東이었다. 時期的으로 中·蘇紛爭이 60년에 접어들면서 黨的 次元에서의 理念紛爭이 國家的 次元에서의 軍事的 對決로 惡化된 때였다. 毛澤東은 이미 1940년에 그가 쓴 論文, 『新民主主義論』에서 試圖한 國家形態의 3個類型인 1) 부르조아獨裁, 2) 프롤레타리아獨裁 그리고 3) 數個階級에 의한 聯合獨裁論<sup>56)</sup>을 提示하면서 第3世界의 過渡期的인 國家形態는 數個階級에 의한 聯合獨裁여야 한다고 主張하여 흐루시초프를 反迫했다. 中·蘇의 見解差異는 革命經驗 및 國家發展段階의 差異를 反映한다. 毛澤東이, 흐루시초프의 中立主義에 대한 期待와는 달리 그의 第3世界 戰略에 對해 懷疑的이며 Nasser 나 Nehru 등 中立主義國家 指導者에 對한 期待의 失望에서 援助와 이데올로기의 一致를 強調하여 흐루시초프와 對立했다. 이리하여 中·蘇는 漸次 第3世界에 對한 浸透競爭으로 번져갔다.

그러나 蘇聯은 이들 第3世界의 反西歐的·反植民的인 國家에 對한 援助를 階級鬭爭의 一環으로 보고 反西歐的·反封建的인 志向性を 利用하려는데 그 政治的 動機가 있었다. 이들 地域은 強力한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勢力을 다같이 缺如하며 또 一般的으로 共產黨勢力이 支配的인 것으로

---

55) *Ibid.*, pp.193-194.

56) 『毛澤東選集』, 第二卷(北京:人民出版社, 1968), pp.633-638;  
金永俊, 『毛澤東思想과 鄧小平의 社會主義』(서울:亞細亞文化社, 1985), pp.60-61.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蘇聯은 民族부르조아지가 反西歐的인 志向性만 維持한다면 利用價値가 있는 것으로 보아왔다. 그래서 蘇聯은 安全獨立과 民主化를 名分으로 反帝·反封建鬭爭을 進步的이며 愛國的인 勢力의 聯合體로서 推進코저 試圖해 왔다. 그렇다면 이 進步的이며 愛國的인 勢力의 聯合體란 무엇일까? 그것은 勞動者·農民·進步的 民族부르조아지·民族主義的인텔리가 그것이다.<sup>57)</sup> 여기에서 본다면 民族民主主義의 實現 擔當勢力인 進步的 愛國的인 勢力의 聯合體는 民衆論에서의 民衆과 그 提携勢力의 範疇과 매우 恰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願하는 것이 마르크스主義이 데올로기가 아니라 經濟發展이기 때문에 蘇聯의 浸透能力에 限界를 보여주고 있다.

## 2. 毛澤東의 民衆·人民·階級聯合의 概念과 範疇

毛澤東이 民族主義者에서 共產主義者로 轉換하며 또 共產主義者로 成長해 가는 過程에 있어도 다 같이 階級과 階層의 概念을 혼동하여 革命主體의 範疇나 概念에 있어 動搖해 갔다. 그러나 그는 1940年代 末에 이르기까지 革命主體의 範疇를 概念化하여 定立했다. 그는 革命主體를 民衆·群衆·人民大衆·大衆·人民등 매우 類似한 말로 區別없이 表現하면서 1949年에 가서는 主體의 概念과 範疇를 定立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人民」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의 主體=人民의 概念과 範疇의 形成·定立을 그의 思想的 形成過程에 照應시켜 檢討하기로 한다.

---

57) Fundamentals of Marxism-Leninism (Moscow : 1963), p.421.

(1) 民族主義者 時代( 1920 年에 이르기까지 )

毛澤東( 1893 ~ 1976 )이 5.4 運動( 1919 )에 참가하여 1920 年 초에 마르크스主義者로 轉換하여 1921 年 共產黨 創黨에 參加했다. 그가 共產主義者로 되기 以前엔, 民衆이란 말을 잘 썼다. 이 時期에 있어 그의 代表的인 主要論文이 「民衆의 大團結」<sup>58)</sup>인데 여기에서 「民衆」이란 官僚・軍閥・資產家를 除外한 나머지 모든 階層을 가리킨다. 그런데 北京에서 나온 이 論文의 英文版을 보면 「民衆」을 popular masses 로 번역되어 「人民大衆」의 준말이 「民衆」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말하는 民衆이란 官僚・軍閥・資產家를 除外한 나머지의 廣汎한 人民大衆을 가리킨다. 이때 毛澤東의 나이 27 歲였다.

기타 自己故郷인 湖南省의 自治運動을 위해 1920 年에 쓴 論文이 있다.

1) 「湖南再建問題에 관한 基本問題—湖南共和國」, 2) 「中國이 湖南에 준 苦痛에 관한 歷史的 當代的 證言」 및 3) 「湖南自治運動은 일어나야 한다」등이 있다. 이때는 그가 思想的으로 매우 混亂된 時期여서 이들 論文에서 그는 軍閥支配를 撤廢하고 「人民」支配를 樹立하고 民主主義에 執着할 것을 強調했으나 具體적으로 人民의 範疇가 무엇이냐에 對해서는 言及이 없다.

(2) 初期 共產主義者 時代( 1921 ~ 26 年 )

그는 共產主義者로 된 후에는 民衆이라는 말 본다는 群衆・人民大衆・人民이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 1949 年에 가서는 革命主體로서의 人民의 概

---

58) Stuart R. Schram(ed.), The political Thought of Mao Tse-tung  
(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69), pp.162-163.

念과 範疇을 體系化했다.

이 初期 共產主義者 時代( 1921 ~ 1926 )에 와서 그는 漸次 勞動者·農民의 役割에 對한 關心을 깊게 하기 始作했다. 「北京쿠데타와 商人의 役割」( 1923 )이라는 論文에서 그는 反軍閥·反帝鬭爭을 強調하면서 革命主體=人民의 範疇로서 商人·勞動者·農民·學生·教師<sup>59)</sup>를 가리키고, 「中國社會의 諸階級の 分析」( 1926 )에선, 人民의 範疇로서, 軍閥·官僚·買辦資本家·大地主·反動知識人을 除外한 나머지의 小資產階·半無產階級·無產階級<sup>60)</sup>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中國의 프롤레타리아트」( 1926 )에선, 中國이 後進國이므로 産業勞動者가 數에 있어서는 적다고 하더라도 民族革命運動에서 主要(major) 勢力<sup>61)</sup>으로 되어 있다고 強調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産業勞動者를 主要勢力이라고 하였을 뿐 그의 主導的( Leading ) 役割을 明白히 強調하지 않았다.

### (3) 江西소비에트時代( 1927 ~ 34年 )

이 時代는 毛澤東이 農民가운데서 特히 貧農·프롤레타리아트의 主導的 役割을 強調하게 되는 時代이다. 그는 「湖南農民運動 考察報告」( 1927 )에선, 農民을 富農·中農·貧農의 세가지로 分類하고 이 중에서 貧農이 壓倒的 數로서 封建勢力 打倒의 前衛이며 또 革命을 遂行할 英雄<sup>62)</sup>이라하여 貧農의 主導的 役割을 強調했다.

---

59) Ibid., pp.206-207; 金永俊, 『앞의 冊』, p.45. 그는 思想的 未成熟 때문에 商人階級에게 反帝民衆革命의 支配的 役割을 賦與하여 그들이 勞·農階級과 단결할 것을 강조했다.

60) Stuart R.Schram, Ibid, pp.210-214.

61) Ibid., p.247.

62) 『毛澤東選集』, 第一卷( 北京:人民出版社, 1966), pp.18-22.

이렇게 毛澤東은 貧農에게 革命의 前衛 ( Vanguard )로서의 業績과 役割을 認定하였으나 같은 해 가을에 湖南秋收農民暴動에서 失敗하자 그는 湖南・江西邊境地區 第2次 黨大會에서의 決議案<sup>63)</sup>에선, 秋收暴動의 失敗가 프롤레타리아트가 強力한 主導權을 掌握하지 못한다 그 要因이 있음을 慨嘆하면서 革命은 프롤레타리아트의 主導權 밑에서 만이 可能하다고 強調했다. 그는 貧農의 主導權 대신에 프롤레타리아트의 主導權의 不可避性을 強調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林彪에게 보내는 「書翰」에서 黨의 最大의 組織上의 課題가, 黨이 프롤레타리아트에 그 基礎를 두는데 있다 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革命的 主導權<sup>64)</sup>을 強調하였다. 그러나 그는 貧農의 主導的 役割을 否認한 것은 決코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이 「書翰」에서 農民力量의 發展이 프롤레타리아트의 主導權을 壓倒할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警告했다.

어쨌든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毛澤東이 江西소비에트 時代に 와서는 그 以前時代に 莫然히 民衆・人民・勞動者・農民의 主導的 役割을 是認하면서도 프롤레타리아트의 組織上의 役割을 또한 強調하게 되었다는데 그 特徵이 있다.

#### (4) 延安時代 ( 1935-1949 )

##### 가) 勞・農關係 및 부르조아階級과의 關係 ( 1935 ~ 1940 年 )

延安時代는 毛澤東의 革命思想이 體系化되며 또한 이에 따라 革命主體의 概念과 範疇가 定立되는 時代였다. 다시 말해서 延安時代는 勞・農關係 및 부르조아階級과의 關係에 관한 그의 革命理論이 定立(1935~1940)되며 革命의

63) 『같은選集』. 같은 卷, p.48.

64) S. R. Schram, op. cit., pp.259-260.

主體인 人民의 概念·範疇가 確立되는 段階(1941~1949)였다.

毛澤東은 「中國革命과 中國共產黨」(1939)에서, 帝國主義· 부르조아지· 封建勢力에 의한 三重의 抑壓속에 隸屬된 中國프롤레타리아트가 革命의 基本的인 原動力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中國革命은 프롤레타리아트의 參與 및 主導權없이 成功할 수 없으며 따라서 過去에 있어 農民戰爭· 農民叛亂이 成功치 못한 것은 프롤레타리아트와 共產黨의 指導力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sup>65)</sup> 여기에서 毛澤東이 示唆하는 것은 勞·農의 革命的 同盟의 必要性을 強調하면서도 프롤레타리아트(黨)의 主導權의 不可避性 卽 프롤레타리아트(黨)의 主導權하에서의 勞·農同盟을 強調하는데 있다. 그리고 革命政府 形態에 關해선, 「新民主主義論」(1940)에서, 中國이 半植民· 半封建的인 社會이기 때문에 過渡期的으로 모든 革命階級の 聯合獨裁<sup>66)</sup> 를 세운다고 했다. 프롤레타리아트(黨)의 主導權을 強調하여 勞·農의 相對的 役割의 比重을 整理하고 過渡政府形態=聯合獨裁를 示唆했다. 그러나 모든 階級の 聯合獨裁라 하면서도 그 階級聯合의 範疇는 定立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1941-1949 年에 이르는 期間에 定立되었다.

나) 毛澤東思想의 公式이데올로기化 試圖와 人民의 範疇(1941-1949年)

毛澤東思想을 中國의 共產革命思想으로 公式化하기 위한 試圖는 1941年 부터 始作되는 第1次 整風運動을 契機로 本格化되었는데, 이때 理論提供의 主役은 陳伯達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1945年에 그의 論文, 「聯合政府論」이 執筆되었다. 그는 이 論文을 通해, 프롤레타리아獨裁와 區別되는 몇個

---

65) 『앞의 毛澤東選集』, 第二卷, pp.588-589, 607-608.

66) 『같은選集』, 같은 卷, pp.633-638.

의 階級の 聯合에 依한 「新民主主義型」의 國家・政府가 樹立<sup>67)</sup>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때 그는 몇個 階級の 聯合이 무엇이냐의 範疇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範疇가 밝혀진 것은 그 4年 후인 1949年에 그가 쓴 「人民民主專政論」에서 였다. 이 論文에서 毛澤東은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卽 「누가 人民인가? 그들은 勞動者 階級, 農民階級, 都市小資產階級, 그리고 民族資產階級이다. ………人民民主專政은 勞動者階級, 農民階級, 그리고 都市小資產階級の 同盟, 특히 勞動者階級과 農民階級の 同盟을 土臺로 한다. ………中國은……資本主義를 利用해야 한다.」<sup>68)</sup>

이 論文에서 毛澤東이 처음으로 人民의 範疇를 밝힌 것이다. 즉 그가 말하는 過渡期的인 聯合獨裁란, 民族資產階級・都市小資產階級・勞動者階級・農民階級이라는 4個 階級에 의한 聯合獨裁를 의미하며 이 4個 階級이 「人民」을 構成하는 範疇였다.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毛澤東은 階級과 階層의 概念을 거의 같은 것으로 혼동하여 같은 것으로 使用했다. 그래서 그는 革命思想의 形成・成熟段階에 따라 革命主體로서 民衆・群衆・大民大衆・大衆・人民등을 概念規定없이 使用하던중 1949年에 와서 「人民」을 4個 階級으로 構成되는 主體로 概念化했다. 그런데 이 「人民」은 그 範疇가 4個 階級으로 構成되어 있어 民族主義的 民族이나 自由民主主義的인 國民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中國의 半植民地・半封建的 後進性에서 오는 革命主體階級인 프롤레타리아트의 中國的 變型이며 社會主義的 民族의 變型이기도 하다.

---

67) 『毛澤東選集』, 第三卷(北京:人民出版社, 1969), pp.962-963.

68) 『같은 選集』, 第四卷, pp.1364-1366.

### 3.北韓의 民族概念과 對南 民族民主戰線

#### (1)北韓의 民族概念

北韓은 中共과는 달리 스탈린의 民族理論의 影響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北韓이 基本的으로 소련의 民族理論을 踏襲하면서도 이 兩者사이에는 共通性和 差異點이 있다.

첫째로 소련에서 人間共同體의 發展過程을 種族 ⇨ 準民族 ⇨ 民族 ⇨ 社會主義的 民族 ⇨ 民族의 融合의 順으로 說明하는데 反하여北韓에는 準民族의 概念이 없다. 民族發生에 關해서 60年代에는 스탈린의 理論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資本主義의 產物이라고 하였으나<sup>69)</sup> 70年代 와서는 그런 表現을 거의 使用하지 않고 있다. 民族의 構成要素에 있어서도 60年代까지는 스탈린理論을 踏襲하여 言論·領土·經濟生活·心理狀態의 共通要素를 들었으나 70年代에 와서는 위의 네가지 要素외에 血統과 文化를 追加하여 強調했다.<sup>70)</sup> 소련이 70年代에 와서 經濟生活의 共通性的의 重要性을 강조한데 反하여北韓은 血統과 文化(言語)의 共通性的의 重要性을 強調했다.

다음은 社會主義的 民族과 부르조아의 民族에 關한 것이다. 民族을 이처럼 2個의 範疇로 區分하는 點에 있어서北韓과 蘇聯은 같다. 그리고 그 概念規定에 있어서도 60年代에 부르조아의 民族을 資本主義制度하에서 살고 있는 民族이라고 한 表現을 70年代에 와서는 削除하여, 資本主義的 生産

---

69) 『대중정치용어사전』(평양:로동당출판사, 1964), p.170-173

70) 『정치사전』(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422-423

方式이 發生하고 封建主義的 割據主義的 分散性이 없어지는 過程에서 이루어진 民族이 부르조아의 民族이라고 한것 外에는 內容에 있어 同一하다.<sup>71)</sup>

그러나 社會主義的 民族의 內容에서는, 差異를 보이고 있다. 물론 社會主義的 民族과 부르조아의 民族의 差異點을 前者가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와 社會主義的 愛國主義를 土臺로 한다고 한 點에 있어서는 60年代의 소聯의 見解를 그대로 踏襲<sup>72)</sup> 하고 있다. 그러나 70年代에 와서는 60年代와는 달리 社會主義的 民族이 勞動者·農民·勤勞인텔리등으로 構成된다는 社會構成面<sup>73)</sup> 을 強調하고 또 社會主義的 愛國主義의 本質的 內容이 階級意識과 民族自主意識이라 하여 社會主義的 民族의 自主性<sup>73)</sup> 을 強調하고  
.....  
있다는 點에서 다르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社會主義的 民族의 構成體는 勞動者·農民·勤勞인텔리이며 따라서 그것은 그들 스스로 肯定하듯이 國民과는 區別된다.<sup>74)</sup>

## (2) 北韓의 對南 民族民主戰線(民民戰)

위와 같은 民族概念을 前提로 하는 北韓의 對南 民族民主戰線의 性格은 무엇일까?

北韓은 1985年 8月 8日 放送을 통해 「統革黨」放送을 「救國의 소리」로 또 統革黨을 「韓國民族民主戰線」으로 改稱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물론 이와 같은 北韓의 새로운 對南工作의 樣相은 主·客觀的 情勢의 흐름을 反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를 時期的으로 우리 남한의 情勢와

---

71) 『정치용어사전』(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0), pp. 292-294

72) 『앞의 정치사전』, p. 580

73) 『같은 사전』, p. 602

74) 『같은 사전』, pp. 422-423

關聯시켜 본다면 運動圈學生들이 三民鬪를 組織하여 示威를 激烈하게 벌이던 時期와 거의 一致한다. 이러한 點에서 본다면 北韓의 對南 民族民主 戰線 (以下 民民戰)은 그들이 새로운 統一戰線을 形成하여 學生들의 反帝 反과소鬪爭에 便乘하여 南韓의 赤化를 追求하려는 戰略의 表現이었다. 民民戰이 戰略概念에 있어서 크게는 이미 言及한 흐루시초프의 對제 3世界 民族民主主義 統一戰線의 戰略을 이어 받고 있음을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흐루시초프의 民族民主國家모델은, 이미 民族獨立을 爭取한 國家로서 對外的으로 反西歐·親蘇·非同盟, 對內的으로 帝國主義와 封建主義의 殘滓를 없애기 위해 自主적인 「非資本主義 發展의 길」<sup>75)</sup>을 걸쭉금 適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民族民主國家의 主體의 範疇는 全人民 卽 勞動者·農民·進歩적인 民族부르조아지·民族인텔리등 各階級の 聯合으로 되어 있다.<sup>76)</sup> 이 點에 있어 毛澤東이 過渡期 政府形態인 人民民主主義에서 前提한 主體 = 人民의 範疇와 거의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點에서 흐루시초프의 民族民主國家모델을 中國을 비롯한 戰後 共產國家의 過渡期 政府形態인 人民民主主義國家모델과는 다르다. 즉 첫째로 兩者는 民衆聯合政權이라는 點에서는 마찬가지로지만 人民民主主義가 프롤레타리아트(黨)의 主導下의 聯合獨裁政權인데 反하여 民族民主國家모델은 共產黨이 不法化되어 不在하거나 그 勢力이 弱한 國家에서 이미 確立된 親西方政權을 親蘇적인 容共·聯共政權으로 轉換시키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 人民民主主義가 이데올로기의으로 처음부터 社會主義 志向의인데 反하여 民族民主國家모

---

75) G.F. Hudson et al, op cit., pp. 194-195.

76) Fundamentals of Marxism-Leninism(Moscow: 1963), p. 421.

델은 資本主義 志向的인 新生獨立國家를 우선 「非資本主義 發展의 길」을 건  
 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共產社會에 이르는 段階・過程面에서 보아  
 民族民主主義는 人民民主主義보다 앞서는 以前的 段階이다. 따라서 民族民主主義  
 는 마르크스의 先進國型 프롤레타리아獨裁 그리고 레닌의 勞・農同盟하의  
 프롤레타리아獨裁만이 아니라 毛澤東式 4個階級の 聯合에 의한 聯合獨裁가  
 다 같이 不可能한 後進國을 共產化하기 위한 前段階戰略이다. 다시 말해서  
 民族民主國家모델은 新西方的인 資本主義志向的 政權 ⇨ 漸進的으로 中立化・  
 非資本主義 志向的 政權 ⇨ 反西方的・親蘇的 民族民主國家 ⇨ 人民民主主義 ⇨  
 共產化的 圖式에 따르는 戰略의 表現이다.

그렇다면 흐루시초프의 民族民主主義 統一戰線의 모델을 따르고 있는 民  
 民戰의 具體的인 戰略은 무엇인가? 民民戰은 「韓國民主自主宣言」<sup>77)</sup>  
 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밝히고 있다. 즉

- 戰略目標：民主自主政權의 樹立
- 打擊對象：反美自主化鬭爭으로 「美帝」勢力・買辦資本家, 反動官僚, 親美  
 分子등의 事大賣國勢力
- 推進勢力：勞動者・農民・青年學生・中小商工人・愛國的 軍人・宗教人등 民  
                   族的 自主的인 民衆
- 決定的 力量：勞動者
- 미더운 同盟：農民
- 主力部隊：學生
- 指導理念：主體思想

---

77) 『로동신문』(1985.8.8).

여기에서 보는 바 소련의 民族民主主義戰線과 北韓의 그것과의 사이에는 指導理念이 다르며 또 前者가 民族부르조아와의 提携를 前提로 한데 反하여 後者は 그렇지 않다는 點에서 말의 表現上 다르다. 그러나 알고 보면 內容上 民族부르조아지란, 그들이 推進勢力으로 列擧하고 있는 中小商工人・愛國的 軍人・宗教人을 가리킨다. 또 主力部隊인 學生은 象徴적으로 인텔리를 가리킨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反美自主化鬪爭의 推進勢力은 勞・農同盟을 中心으로 民族부르조아지와 인텔리를 包括하는 階級聯合(民衆)이다. 이 點에 있어 民民戰은 人民民主主義의 前段階로서 適用되는 흐루시초프의 民族民主國家모델의 韓國的 再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北韓의 對南戰略에서 從前과 다른 點은 統革黨 주도하의 人民民主主義路線이 形式上 民民戰으로 修正 補完되었을 뿐 그 本質에 있어서는 큰 變化가 없다. 따라서 民民戰이 말하는 「民主自主政權」이란, 形式에서는 프롤레타리아 中心의 民族民主政權(民衆聯合 政權) 그리고 內容에 있어서는 人民民主主義 政權의 樹立을 示唆한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 IV. 民衆論의 「民衆」과 마르크스·레닌主義的 「民族」의 相關關係

위에 試圖한 分析을 土臺로 民衆論의 「民衆」이 마르크스·레닌主義的인 脈絡에서 世界觀으로서 唯物史觀을 堅持하는 限 民主國家의 民族과는 概念上으로도 實際上으로도 兩立할 수 없음을 整理, 要約코져 한다. 이미 檢討한 바와 같이 民衆論은 그 組織母體로서의 三民闘 그리고 그것에서 派生한 民民闘·自民闘·民族民衆革命派등 여러 分派가 있으나, 그들의 共通的인 世界觀은 唯物史觀이며 따라서 우리의 民族史를 階級闘爭中心의 民衆抗爭史로 바꾸어 놓았다. 이 唯物史觀을 나타내는 基本的인 텍스트가 바로 『光州 民衆抗爭의 民衆運動史的 照明』<sup>78)</sup> 이다. 唯物史觀을 共通的인 世界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當然한 論理的 歸結로서 그들은 民衆革命의 終局的인 目標인 統一觀에 있어서도 同一한 立場에 서 있다. 그들에 있어 統一問題에 관한 共通的인 텍스트는 『韓半島의 危機狀況과 民族統一』<sup>79)</sup>로 되어 있다. 다만 이들 여러 分派에서의 差異는 言語表現上的 差異와 闘爭對象의 重點에 있어서 差異가 있을 뿐이며 다 같이 自由資本主義의 打倒를 그 戰略目標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理念的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的인 脈絡의 範疇에 屬한다. 이제 우리의 理解를 結論的으로 整理하기 위해 便宜上 1) 闘爭對象 2) 革命主體 3) 過渡的인 革命政府形態 4) 終局的인 革命目標인 統一이라는 네個의 側面에서 要約코져 한다.

---

78) “光州 民衆抗爭의 民衆運動史的 照明”, 『學園問題研究資料』  
(全國大學原理研究會, 1986), pp. 195 - 264.

79) “韓半島의 危機狀況과 民族統一”, 『같은 冊』, pp. 71 - 194.

## 1. 鬪爭對象

三民鬪와 民民鬪는 主要矛盾이 「파쇼政權」과 民衆사이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反帝自主化鬪爭 보다는 反파쇼民主化鬪爭에 1次的인 優先順位가 주어져 있는데 反해 自民鬪와 民族民衆革命(NPR)派는 主要矛盾이 國際獨占資本主義와 民衆사이의 對立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反파쇼民主化鬪爭 보다는 反帝自主化鬪爭에 1次的인 優先順位가 주어져 있다. 이처럼 鬪爭對象의 優先順位에 表現의 差異는 있어도 그 戰略目標에 있어서는 本質적으로 同一하다. 다시 말해서 三民鬪와 民民鬪는 反파쇼民主化鬪爭에 優先順位를 두고 있으나 그것은 反파쇼民主化鬪爭에 의해 「파쇼政權」을 打倒하여 帝國主義의 弱한 「고리」(link)를 斷絶시킴으로서 帝國主義逐出로 이어져서 비로서 完結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自民鬪와 民族民衆革命(NPR)派 역시 先反帝自主化鬪爭이 後「파쇼政權」打倒로 이어짐으로서 完結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있어 NPR의 特色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를 強調한다는데 있다.<sup>80)</sup> 이처럼 그들의 鬪爭對象은 先·後의 優先順位는 時期上的 差異이며 따라서 그것은 本質적인 差異는 아니다. 때문에 그것은 크게는 마르크스·레닌主義的인 戰略·戰術의 脈絡이나 範疇에 속하며 흐루시초프의 民族民主國家모델이나 北韓의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民族民主主義戰線(民民戰)이 特定한 歷史的 段階에서 修正된 韓國的 再版이라 할 수 있다.

## 2. 革命主體

民衆論者들은 革命의 主體를 民衆으로 設定하고 있다. 그들은 「民衆」을

---

80) 『前進하는 프롤레타리아의 里程碑』, 제 1 장, 4) 參照.

英文으로는 「 People 」(人民)로 표기하면서도 우리 말로서는 人民民主主義 또는 人民政權으로 表現하지 않고 民衆民主主義 또는 民衆政權으로 表現하는 것은 「人民」이라는 말에 對한 一般國民의 拒否反應에 對한 意識의 反映으로 理解해도 無妨할 것 같다. 이들에 있어 革命主體 = 民衆에 對한 概念에 있어서는 基本的으로 完全히 意見이 一致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民衆의 概念은 「植民地・半植民地 나라들의 反帝國主義・反買辦鬪爭 過程에서 形成된 階級聯合의 歷史的 實體」<sup>81)</sup> 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 같은 概念을 土台로 여러 分派들이 共通的으로 勞動者・農民・都市貧民을 基層民衆으로 보는데 있어도 同一하다. 다만 그들 간의 差異는 實際的인 觀點에서 革命的 核心的인 主體인 民衆이 同盟・提携할 對象의 範疇에 있어 多少間의 差異가 있을 따름이다.

이와 같이 民衆論者들의 「民衆」은, 概念的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的인 人民 또는 프롤레타리아民族과 같은 範疇에 屬한다. 이미 앞의 (Ⅲ) 「마르크스・레닌主義的인 民族・人民・民衆・階級聯合의 概念」에서 檢討한 바와 같이 소聯의 民族理論은 스탈린의 民族理論을 바탕으로 하고 北韓은 이 스탈린의 民族理論을 거의 그대로 踏襲하고 있다. 그리고 毛澤東의 中共에서는 民族理論이 體系化되지 않은 채 다만 本格的인 社會主義에 이르기 以前의 過渡期 段階인, 人民民主主義 段階의 政治的 主體 = 人民의 範疇를 定義했을 따름이다.

소련의 民族理論의 特色은 1) 民族의 構成要素, 2) 民族集團의 發顯形態와 段階, 3) 民族의 類型分類 그리고 4) 人民의 分類에 그 特色이 있

---

81) “一步前進”, 『앞의 冊』, p.376.

다. 소련은 民族의 構成要素로서 言語・地域・經濟生活・文化的 共通性에서 表現되는 心理狀態등의 共通성을 들고 스탈린死後 70年代에 와서는 그 中에서도 特히 經濟生活의 共通性的 重要性을 強調한다. 人間集團의 發顯과 段階를 種族 = 準民族 ⇨ 民族 ⇨ 社會主義的 民族 ⇨ 諸民族의 融合으로 說明한다. 그리고 이들 段階的 說明에 있어서 民族을 資本主義의 歷史的 產物로 보고 社會主義革命으로 本來的 意味에서의 民族은 質적으로 變化하여 社會主義的 民族으로 되는데, 이것은 또 世界가 社會主義로 되면 모든 民族은 하나의 社會主義 民族으로 統合・融合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련에서는 民族을 社會主義的 民族과 부르조아적 民族의 두 類型으로 大別한다. 그러나 社會主義革命이 成功했다고 하더라도 思想的으로 社會主義화된 「人民」과 그렇지 못한 「非人民」이 社會主義的 民族안에 있기 때문에 「形式的」인 社會主義 民族을 「質的」인 社會主義的 民族으로 改造하기 위한 鬪爭의 繼續이 必要하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民衆論者들의 民衆의 概念은 社會主義的 民族 또는 思想的으로 改造의 餘地없이 社會主義화된 民族 = 「人民」과 거의 같은 範疇에 속한다.

소聯의 民族理論을 거의 그대로 踏襲한 北韓은 民族을 構成하는 要素에 있어 소련이 特히 經濟生活의 共通性的 重要性을 強調하는데 反하여 言語(文化)와 血統의 重要性을 強調하는 點에서 差異를 보이고 있다. 또 北韓은 民族을 社會主義的 民族과 부르조아의 民族으로 大別하며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와 社會主義的 愛國主義를 強調하는 데서는 매우 同質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소聯과는 달리 社會主義的 民族의 「自主性」을 強調하는 것이 特色이다. 또 北韓은 人民의 範疇를 設定하고 있는 것이 그 特色이다. 그들은 人民이란, 勞動者階級과 農民을 비롯한 靑

年學生·知識人·愛國的 軍人, 一部 愛國的 民族資本家들과 小資產階級이라고 規定하고 있다.<sup>82)</sup> 또 北韓은 社會主義的 民族의 範疇로서 勞動者·農民·勤勞인텔리를 設定하고 있다.<sup>83)</sup> 여기에서 보면, 民衆論者들의 民衆 特히 基層民衆이 北韓의 社會主義的 民族과 그리고 基層民衆의 同盟·提携勢力이 그 範疇에 있어 北韓의 人民과 각각 거의 비슷한 脈絡에 있다.

毛澤東은 民族理論을 定立치 않았다. 따라서 그는 다만 過渡的 人民民主主義 = 聯合獨裁로 構成하는 人民의 範疇設定에 主眼點을 두고 그 範疇로서 民族資本家·小市民·勞動者·農民이라는 4個範疇로 設定했다. 여기에서 본다면, 民衆論者들의 基層民衆인 勞動者·農民·都市貧民은 毛澤東의 革命主體勢力인 勞·農同盟의 擴大版이며 또 基層民衆의 同盟·提携勢力은 毛澤東의 民族資本家·小市民의 範疇를 現段階 韓國的 實情에서 細分化한 것이다.

이들 여러 點에서 미루어 보아 民衆論者들이 革命主體로서 想定한 民衆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소聯의 社會主義的 民族이나 人民과 거의 비슷한 脈絡에 서 있으며 特히 北韓의 人民의 範疇에 더욱 接近되고 또 毛澤東의 人民의 範疇를 擴大·細分化한 느낌이 있다.

### 3. 過渡的 革命政府 形態 = 民衆聯合獨裁政府

民衆論者들은 分派에 따라 樹立될 政府形態에 對한 表現을 달리하고 있다. 卽 三民鬪는 民族·民主·民衆政府, 民民鬪는 民主民衆共和國, 自民鬪는 民衆民主政權 그리고 民族民衆革命派(NPR)는 民衆聯合獨裁로 大體

---

82) 『정치사건』(平壤: 사회과학출판사, 1972), p. 446

83) 『같은 사건』, (1973), p. 580.

로 表現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表現語句上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이들이 말하는 民衆政權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民衆聯合 獨裁政權이다. 그러나 이들이 革命에 依해 社會主義에 어떻게 轉換하느냐에 對한 革命段階 또는 過程에 對해서 매우 애매하며 따라서 具體적인 分析이나 說明이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明白하게 社會主義로 轉換하기 以前의 過渡期 段階의 革命政府를 民衆聯合 獨裁政權으로 規定하고 있는 것은 民族民衆革命派 (NPR)이다. 그러나 다른 分派도 大體로 民族民衆革命派의 主張과 類似한 性格의 政府形態를 過渡期的으로 想定하고 있다고 보아도 無妨할 것이다. 그들이 「形態上」, 民衆聯合獨裁體制의 樹立을 主張한다는 點에서는 毛澤東의 4個 階級에 依한 聯合獨裁모델을 방불케 한다. 그러나 이러한 「形態上」의 類似性에도 不拘하고 中共과 民衆論者사이에 커다란 時差가 있다. 毛澤東의 聯合獨裁論은 植民地·半植民地國家가 對外的 反帝鬭爭과 對內的인 反封建鬭爭에 依해 民族獨立과 더불어 樹立될 聯合獨裁를 말하며 따라서 그것은 프롤레타리아獨裁의 變型이며 中國版이었다. 그러나 우리 大韓民國 政府는 이미 40年前에 樹立되었으며 따라서 우리 韓民族이 獨立 以前의 民族獨立鬭爭의 段階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時差때문에 民衆論者들이 우리나라를 植民地라고 하지 않고 新植民地라고 賣渡하고 있다. 그런데 新生獨立國家를 新植民地라고 規定하여 「非資本主義的 發展의 길로」로 끌어 들이기 위해 소聯이 適用코저 試圖하는 모델이 1960年 12月 모스크바에서 열린 世界 81 個國 共產黨代表者會議에서 採擇된 「民族民主國家」 모델이다. 그러나 이 民族民主國家모델은 프롤레타리아主導하의 聯合獨裁政權의 樹立이 一次的인 目標로 되어 있지 않다는 點에서 民衆論者들의 民衆聯合獨裁와는 커다란 差異가 있다. 그것은 民族民主國家모델이 共產黨이 脆弱한

나라에서 人民民主主義 = 聯合獨裁 以前の 段階에 適用하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에 民民戰이 提示한 모델과는 어떠한 關係가 있을까?

1985년 8月 8日 北韓이 放送을 통해 南韓에 呼訴한 民族民主主義戰線 (民民戰)은 소련의 民族民主國家모델의 完全한 複寫版은 아니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그것과 脈絡을 같이 하고 있다. 優先 鬪爭對象으로 反美 自主化를 設定하고 打擊對象은 「美帝」勢力과 「事大賣國」勢力 즉 賣辦資本家・反動官僚・親美分子이며 推進勢力은 勞動者・農民・學生・青年學生・中小商工人・愛國的 軍人・宗教人을 비롯한 民族・自主 指向의 광범한 民衆으로 되어 있고 勞動階級이 決定的 力量, 農民이 그 미더운 同盟者 그리고 青年學生이 鬪爭의 主力部隊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본다면 民民戰의 路線과 民衆理論者의 그것이 매우 恰似하다.

따라서 民衆論者들이 想定한 民衆政權이, 單純한 프롤레타리아聯合政權(民族民主主義)에서 부터 프롤레타리아中心의 民衆聯合獨裁(人民民主主義)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形態를 想定한다고 하더라도 理念的으로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變型과 같은 範疇에 속한다. 어쨌든 民衆運動이 단순한 社會改革 運動이 아니라 階級鬪爭인 限에 있어 民衆革命은 프롤레타리아革命의 韓國的 變型이며 따라서 民衆聯合政權도 프롤레타리아獨裁의 韓國的 再版이라는 結論이 스스로 나온다.

#### 4. 民族・民主・民衆 統一論

民衆論者들의 革命은 南韓社會의 革命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

의 革命論은 南韓의 革命 ⇨ 民衆聯合政府樹立 ⇨ 北韓에의 吸收 ⇨ 赤化統一  
로 完結되겠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民衆論者들의 革命論의 目標가 南  
韓의 革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韓半島全體의 赤化統一에 두어져 있다  
는 뜻이다. 그들은 「民族」을 名分으로 反帝・反美鬭爭에 의한 民  
族的 自主化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속에 숨어 있는 戰略的 底意는 美  
軍을 撤去시켜 韓美紐帶를 斷絶시키고 힘의 空白을 造成하며 韓國을 國  
際적으로 孤立시키는데 있다. 이 對外的 反帝「自主化」鬭爭과 더불어 對內  
的 反파쇼「民主化」鬭爭을 또한 소리 높히 외치고 있으나, 그들이 強調하  
는 「民主化」의 外皮를 벗기고 보면 그 實體는 聯共・容共이다. 또 「民  
衆」이라는 口號는 이미 상세히 檢討한 바와 같이 勞動者・農民・都市貧民  
의 基層民衆과 一部の 同盟・提携可能한 階層(階級)만을 가리키며 따라  
서 그것을 어디까지나 民族全體를 包括하는 것은 決코 아니다. 다시 말  
해서 民衆論者들의 民衆은 소련의 民族理論을 바탕으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民族이나 人民을 가리키며 또 毛澤東의 人民의 範疇의 擴大版이며 특히 北  
韓의 人民의 範疇와 거의 同一하다. 따라서 民衆論者들이 말하는 民衆이  
主體가 되는 民族國家의 實體는 共產國家를 가리킨다.

## 結 論

위에서 民衆運動을 우리 나라 戰後의 學生運動史의 脈絡에서 檢討하고 80年代의 民衆運動을 三民闘・民民闘・自民闘・民族民衆革命派를 중심으로 그 世界觀・路線・戰略戰術을 살펴본 다음 民衆論의 理念的 脈絡을 또한 分析해 보았다. 그리고 이들 分析을 土臺로 民衆論과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相關關係를, 鬪爭對象 革命主體・過渡的 政府形態・民衆統一論이라는 네個의 次元에서 導出했다.

民衆論이 世界觀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堅持하며 民衆運動을 階級鬪爭으로 推進하여 過渡的 民衆聯合政府의 樹立을 거쳐 北韓에 의한 吸收, 赤北統一을 追求하는 限 그들의 革命主體인 民衆은 理念이나 그 範疇에 있어서 「民族」과는 兩分할 수 없다. 더욱이 그들이 對內的인 反과소民主化鬪爭과 더불어 對外的인 反美自主化鬪爭을 외쳐 마치 民族主義의 代辯者와 같은 外皮를 쓰고 있다. 그들의 反帝는 反美를 의미하고 또 反美는 自主化보다는 對美紐帶의 遮斷을 노리는데 그 戰略的 底意가 있다. 그래서 歷史的으로 따져 본다면 지나친 自主性・主體性에 對한 鼓吹때문에 共產主義者들에 의해 逆利用됨으로서 共產化의 悲運에서 허덕이게 된 事例가 적지 않다. 一例를 들면 自主的이며 主體的인 民族解放과 民族獨立國家의 建設을 위해 對共產黨 鬪爭을 2次的인 것으로 돌리고 2次에 걸친 國・共간의 統一戰線의 形成으로 抗日鬪爭 名分の 共產黨戰略에 휘말려 共產黨에게 勢力膨脹의 時間的 여유와 組織의 安定性을 주게 됨으로서 結局 共產化된 中國의 경우도 이에 該當한다. 胡志明의 民族主義 宣傳口號에 國民이 말려들어 共產化된 베트남도 같은 事例이다. 뿐만 아니라 近者에 있었던

니카라과의 政變과 左翼政權의 登場도, 與黨인 소모사政權의 親美關係를 反自主的・反主體的인 隸屬關係로 同等시켜 反美・反帝鬭爭의 政治的 霧圍氣를 利用함으로써 이뤄졌던 것이다.

民衆論者들이 외치는 反美自主化鬭爭과 反과쇼民主化鬭爭은 鬭爭對象으로서 同一體의 兩面처럼 密接 不可分離의 關係에 있으며 反美에 依한 反과쇼・政府打倒와 反과쇼・政府打倒에 의한 反美的 遂行으로 韓半島를 赤化하겠다는 것이다. 이 點에 있어 그들이 主張하는 民族・民主・民衆은 多같이 反民族的, 反民主的이며 프롤레타리아的이며 따라서 그들의 「民族」이란, 社會主義的 民族이나 民族의 特定한 構成要素인 人民을 가리키는 것이지 결코 民族全體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그들의 主觀的인 偏見은 그들이 追從하는 이데올로기의 產物이다. 運動圈學生들의 民衆運動은 社會改革을 위한 運動이 아니라 武裝鬭爭에 의해 社會를 急進的으로 變革시키기 위한 階級鬭爭과 그 理念的인 脈絡을 같이 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基本理念에 있어 마르크스・엥겔스의 階級史觀을 土臺로 레닌의 帝國主義論 그리고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亞流인 新左翼, 네오 마르크스主義, 유로코뮤니즘, 縱屬理論등 多様な 理念의 影響을 받고 있다. 民衆運動을 學生을 비롯한 知識人の 運動으로 想定하고 있다는 點에선 新左翼이나 네오 마르크스主義와, 過渡的 革命政府를 民衆聯合政權으로 보고 있다는 點에선 유로코뮤니즘이나 中共・東歐・北韓의 人民民主主義를 비롯하여 蘇聯의 對第3世界 赤化모델인 民族民主國家 및 北韓의 對南戰略構圖인 民民戰과 各各 그 이데올로기의 脈絡을 같이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韓國社會를 隸屬 國家獨占資本主義로 規定하고 있다는 點에선, 從屬理論을 이어 받고 있다. 또 民衆革命의 推進勢力으로 그들이

設定한 民衆의 範疇과 概念도 크게는 마르크스·레닌主義的인 社會主義的 民族이나 人民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 그럼에도不拘하고 前後 一貫된 그들의 敘述方式이나 論理展開는 더욱 北韓의 그것을 방불케 하며 따라서 그들이 主張하는 民族·民衆·民主의 口號는 金日成式 全體主義的 獨裁의 그것과 같은 脈絡의 것이라 할 수 있다.